



이집트 혁명 1주년
혁명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 8~9 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저항을 촉발하는 체제의 위기
▶ 3 면

반제국주의
미국의 새국방전략과 이란 압박
▶ 7 면

학교 폭력
학생들에게 폭력 권하는 사회
▶ 10, 11 면

진보의 대안 논쟁
통합진보당의 성격과 민주노총 정치방침
▶ 5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송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간)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03

Left21.com

제73호 | 2012년 1월 14일 ~ 2월 3일 | 값 1,800원
설 연휴 때문에 다음 신문은 3주 뒤인 2월 3일에 나옵니다.

레프트21

디도스, 돈봉투... 뱃속까지 부패한

1퍼센트 정권이 유너당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바야흐로 '너 죽고 나 살기' 식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박희태 쪽에서 돈봉투를 뿌렸다는 고승덕의 폭로가 방아쇠 구실을 했다. 차떼기당에 이어 '돈봉투당'이 된 것이다.

친이계와 연합해 박근혜를 견제하던 정몽준은, 총부리를 돌려 친이계가 당시 자신을 견제하려고 박희태를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사실상 돈 살포 배후로 이명박과 이상득을 지목한 것이다.

홍준표는 친이계 핵심 안상수와 겨뤘던 2010년 당대표 선거에서도 돈과 향응 제공이 있었다고

폭로하더니, 10일에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겨룬 2007년 대선 경선에서도 돈봉투가 돌았다고 폭로했다. 대선 경선 돈봉투 의혹 폭로에는 친이계 출신 원희룡도 가세했다.

돈봉투 자금 출처로 이명박의 대선 잔금설도 거론되고 있다. MB 측근인 청와대 정무수석 김효재가 돈 배달을 했다는 의혹이 일자 검찰은 돈봉투 전담자가 박희태의 비서라고 발표했다. 공교롭게도 김효재와 박희태(의 비서들은) 모두 돈봉투와 디도스 의혹에 연루돼 있다. 박희태는 이명박과 이상득의 지원으로 당대표를 하고 국회의장까지 올랐다.

이상득에 이어서, 이명박 정권의 핵심 실세인 방 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쪽의 수백억 규모 비리 의혹도 폭발하기 시작했다. "청와대가 개입된 게 분명하다면 대통령 탄핵 사안"이라는 디도스 사건도 여전히 이명박의 뒷목을 잡고 있다. 게다가 이상득은 물론이고 내곡동 사저 의혹으로 이명박의 처와 아들까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비록 '배후가 없는 젊은 두 비서관의 우발적 범행'이라며 디도스 사건을 덮어 버린 검찰이지만,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터져 나오는 비리 의혹들을 다 덮어 버리는 힘들어 보일 정도다. 경찰과 검찰의 허술한 꼬리

자르기가 오히려 청와대 개입설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쪽에서 친이계를 공격하고 물 같이 하기 위해 '돈봉투'를 터뜨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음모론은 지금 한나라당이 직면한 위기를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박근혜 비대위의 상황통제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누구의 음모로 누가 희생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나라당 주류 모두 부패의 주범이고, 이런 분열과 해체 위기는 대중의 불신과 분노가 원심력으로 작용해 벌어진 일이다.

▶ 4면으로 이어짐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 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을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카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누구의말알아요?

“당선되면 핵개발을 하는 이란을 폭격하겠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샌토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일과가 끝나면 관저에서 무엇을 하느냐 물었더니 ‘집사람 공부니만 졸졸 따라다닌다’고 했다.”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 김연경의 폭로

“다들 밥에 손이 안가 한참을 그냥 말없이 있었습니다. ...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깊은 한숨이 전염병처럼 방을 돌았습니다.”
전여욱이 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식사 풍경

“김근태 씨를 민주화운동의 대부라고 호칭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
우파 교수 양동안

“전철원 ... 서초2동 전역을 썰렁 썰렁 울리면서 시끄럽게 하는 건 진짜 미친놈들”
한나라당 최연소 비대위원 이준석

“만약 [다도스 사건]의 배후가 있다면 그걸 밝히는 건 신의 영역”
검찰, 소망교회 가서 기도하려나

“한나라당은 제 당이고 제가 가장 한나라당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최구식, 그래서 더 의심이 간다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이 책임질 것이다.”
디도스 주범 공씨가
공범 황씨에게 했다는 말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나를 해고했다고 하더라.”
새해 벽두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해고당한 청소년노동자

“도지사의 음성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불을 잘 꺼도 도지사 음성 기억 못하면 좌천된다.”
개콘 ‘사마귀 유치원’의
출중한 소방관 되는 법

“박근혜 말 한마디에 급조된 학교 폭력 신고전화 117. 이제 박근혜도 놀이 할려나? 여보세요, 나 박근혜 ...”
한 네티즌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 (다음호는 2월 3일)

강남역 11번 출구 글라스타워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3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충각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대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 앞), 물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점(울산 현대 차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핵안보정상회의 반대

핵 독점 강대국가들의 세계 평화 위협 회의

3월 26~27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 위협’에 대응하자는 오바마의 제안으로 지난해 처음 워싱턴에서 열렸다. 핵 물질을 이용한 테러나 핵 시설에 대한 테러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대상국을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보유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50여 나라로 정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한 진정한 노림수는 따로 있다.

지난해 핵테세검토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뉴욕타임스〉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 오바마는 유독 이란과 북한을 NPT 체제의 “국외자”로 지목하고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테러 방지’가 현실에서 겨냥하고 있는 대상도 핵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미국의 승인 없이 보유·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이다.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의 결과 만들어진 작업계획 문서도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해상 봉쇄 조치인 유엔안보리결의안 1540호를 핵물질 확산을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와 이에 대한 이란의 반발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2011년 한미 연합군사훈련 해마다 북한 진격 훈련을 하는 자들은 세계 평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커지는 상황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구실을 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를 몇 주 앞둔 2월 말~3월 초에는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키리졸브 훈련)도 예정돼 있다.

완전한 위선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 핵물질을 보유한 미국이 북한과 이란의 핵물질을 문제삼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또다른 핵 강대국들인 러시아와 중국도 오바마의 위선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보고서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를 정부수립 이래 최대의 국제안보행사에서 거론하지 않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는다”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핵확산 활동을 비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생인권조례 뒤집으려는 우파의 망발을 막아야

박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

지난해 12월 19일 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에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했다. 10만여 서울시민이 주민발의를 했고 교육청의 검토와 시의회의 표결을 통해 제정된 조례를 교육감 권한대행이 전면 부정한 것이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강렬하게 반대했던 보수단체들은 끊임없이 서울시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요구해 왔으며,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조례 통과 후 “교육청에 재의 권고를 넣겠다”고 공공연히 압박해 왔다. 박노현 교육감이 없는 틈을 타 진보운동의 성과를 파괴하려는 것이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특정 이념에 의

해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되면 교사·학생 교육권이 침해”되며, “성적 지향 차별 금지로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두발 자유 등으로 교원 교육활동 혼선 초래”되며,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인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점 등을 재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의 요구는 이미 서울시교육청 내부 검토를 통해 근거 없다는 결론이 난 상태다. 게다가 국감 행정감사 중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를 공포할 것’이라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정글의 법칙?

무엇보다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 이유로 든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두발자유, 체벌금지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지켜내야 할 핵심적인 인권 과

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서한을 보내 “서울시의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을 환영하며 한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 권리 보장의 초석이 되었다”고 했다.

보수 언론과 단체들은 연일 학교폭력이 교권이 추락해서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양 떠들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폭력 학생들의 인권만 옹호하는 그런 정글의 법칙으로 변질”되고 “대다수 학생들이] ... 평온한 학교생활을 누릴 인권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야말로 ‘권력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을 ‘인권과 존중의 법칙’으로 바꿔낼 가장 적합한 대안이다.

조례 제정에 찬성했던 서울시의회 교육

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은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대영 부교육감은 퇴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자기 입으로 한 약속도 내팽개치고 반민주·반인권·반교육적 폭거를 벌인 이대영은 부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교육청도 근거를 찾지 못한 재의 요구는 철회돼야 마땅하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는 핵산업계회의(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급락한 원자력에 대한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김종신 조직위원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했고 해외에도 핵발전소를 수출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강대국들의 패권과 핵 독점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이 점에서 2월 초 출범을 앞둔 ‘(가칭)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에 참가하는 일부 단체들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히길 꺼리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은 오바마와 이명박의 계획에 정면으로 맞서는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장호중

〈레프트21〉판매자 2심 선고 공판

또다시 보기 좋게 좌절된 검찰의 반민주적 공격

김지태 〈레프트21〉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 대표

지난해 12월 30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5인 무죄, 1인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1심에 이어 다시 한 번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하려던 검찰의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과 언론 탄압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의 승리다. 특히 최근 이명박 정부가

위기 탈출 수단으로 반민주적 공격을 강화하는 시점에서 더 의미 있다.

이 성과는 그간 수많은 분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내 준 덕분이다. 선고 공판 당일에도 수십 명이 모여서 법원 앞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했다. 이 결의대회는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사회당,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촛불네트즌 공권력 탄압저지를 위한 공대위 등 많은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그러나 검찰은 악랄하게도 무죄를 받은 5인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당성의 바닥이 드러나 연거푸 패배했는데도 뻔뻔하게 반민주적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레프트21〉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는 이런 공격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선고유예를 받은 1인에게 분명한 무죄를 선고하라는 의미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 투쟁에 계속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

정정합니다

72호 1면 이명박 일가와 친인척 비리 그림에서 화살표가 일부 틀리게 표시돼 정정합니다.

— 제일저축은행 회장 유동천이 김윤옥의 사촌오빠 김재홍과 둘째 형부 황태섭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돈 화살표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 또 SLS 회장 이국철이 이상득 전 보좌관인 박배수와 박영준에게 각각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로비자금과 술집대 화살표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1월 14일(토) 오후 5시 서울 청계광장

FTA 폐기, 부패 정치 심판 촛불대회

주최: 한미·한중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월 28일(토) 서울 도심 (시간/장소 추후 공지)

한미FTA 발효 중단, 한나라당 심판대회

주최: 한미·한중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1월 28일(토) 저녁 7:30 재능교육 본사 앞(서울 혜화동)

재능 천막 농성 1500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과 재능지부 투쟁 승리를 위한 재능본사 포위 투쟁

주최: 재능OUT 국민운동본부

자본주의 위기가 급진적 저항을 촉발하고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

2011년은 흔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추상적 논의로만 여겨지던 '위기', '혁명', '대중 파업'이 살아 숨 쉬는 현실이 된 해였다.

2011년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단지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기 위해,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는 2007년 8월에 처음 발생한 세계경제 위기가 5년째 되는 해를 맞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신경 체계 같은 구실을 하는 금융 체계에서 위기가 기원한 방식을 아는 것은 현재 유료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위기는 그리스인의 '방탕함'이나 독일인들의 '인색함' 같은 세간의 편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유럽 은행 체계의 위기가 핵심 원인이다.

유럽 은행들은 모두 여전히 유료존 국가의 부채와 국채를 상당량 쥐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디트나 독일의 코메르츠뱅크 같은 일부 대형 은행들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이른바 그리스·아일랜드 '구제'는 그 나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유럽 은행들을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익숙한 얘기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위기가 자본주의의 역사적 핵심 부인 EU와 미국에서부터 나머지 국가로 확산됐다는 점이다.

신흥국 위기

세계경제는 2008년과 2009년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 세계경제의 회복 과정은 흔히 '투 스피드'(Two-Speed) 회복으로 묘사됐다.

이른바 신흥국들(중국,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장 중요하다)에서는, 2009년 이후로 경제가 활발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는 이 경제들도 침체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유료존 위기로 무역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흥국들의 위기는 투기적 투자가 매우 많았다는 점과 함께, 중국 경제성장의 불안정성



사진 출처: Tom Wills

지난해 11월 30일 공공부문 파업에 참가한 영국 노동자들 경제 위기와 아랍 혁명, 긴축에 맞선 파업은 노동자 조직의 부활을 추동하고 있다.

을 반영한다. 크게 보면, 다른 신흥국 경제는 중국 경제에 식료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성장했다.

내가 보기에 2012년에는 전반적으로 위기가 지속될 듯하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약 1년 전 튀니지에서 시작된 혁명이 발전하며 혁명적 전통이 되살아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집트에서 우리는 진정한 급진적 과정을 봤다. 최고군사위원회라는 군부가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지만, 또한 혁명이 심화하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무시 못할 혁명적 소수가 형성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 반드시 자본주의가 전복돼야 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바라크뿐 아니라 정권을 통째로 제거하고 싶어한다.

이집트 혁명은 국제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이집트 혁명은 반자본주의 반란의 새물결을 일으키는 데 일조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은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 점거를 따라했다. 스페인

5월 15일 운동이 먼저 모방을 시작했지만,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와 함께 진정으로 그것이 국제적으로 확산됐다.

'점거하라' 운동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에 맞선 도전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다지 일관되지 않고, 아직 상징적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 상징적 변화가 중요하다.

이것은 셋째 정점인 대중 파업 문제와 연결된다. 대중 파업은 '점거하라' 운동이 상징하는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매우 해 준다. 우리는 어떤 사회 세력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가?

우리는 여기저기서 노동계급이 긴 침체의 시기를 지나 되살아나는 것을 보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 파업이 사회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치며 노동자 조직의 부활을 추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파업의 미래는 불분명하지만 상황은 열려 있다.

세계를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는 듯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우리는 지난해에 그 격차를 좀더 좁힌 것 같다.

부패 정부에 맞서 정의를 요구하는 대학생 시국선언

디도스 공격과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국민대 등의 학생들이 연이어 시국선언을 했고 인하대, 이화여대 등에서도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대학가 시국선언 행렬은 이 정부의 비리와 부패, 부도덕성을 향한 대중적 분노가 얼마나 커져야 쌓여 왔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서울대 시국선언문을 작성한 원종진 씨는 "부끄럽지만 이전에 학생 사회에 기여를 한 바도 없고, 정치 관련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도 없는 일반 학우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적 이념을 떠나 우리 사회의 최소 선(善)이 침해되는 상황들을 보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서울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몇몇 개인이 시국선언 문안을 작성하고 단과대 학생회장 연

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제안했다. 이후 연석회의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서울대 시국선언이 시작됐다.

이후 온·오프라인 서명과 신문 광고를 위한 모금이 이어졌다. 서명은 곧 3천 명을 넘었고, 광고를 위해 2천1백40여만 원이 모금됐다. 학생들은 "과외비가 드디어 들어왔네요, 곧 입금하겠습니다", "이번 달 알바에 들어왔으니 조금 더 낼게요" 하며 한두 푼씩 돈을 모았다.

한두 푼

고려대 시국선언 온라인 서명 게시판에도 순식간에 1천5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서명을 했고, "제가 사는 이 나라가 이 정도였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냐?", "선배들의 4·18 정신을 이어 나가자", "맞서 싸워야 한다", "선배들이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일부 좌파들은 지금의 시국선언이 민주통합당에만 도움이 된다고 여

겨 이 문제에 열의가 없는 듯하다. 또는 디도스 시국선언이 더 중요한 노동 생존권 문제를 가린다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의 수호를 단지 정쟁의 수단으로 보서는 안 된다. 한국처럼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안착하지 않은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둘러싼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한 분노는 대중의 자주적 행동을 고무할 수 있고, 이런 정치 투쟁은 노동자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

현재 서울대 학생들은 1월 11일 기자회견 이후 무엇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하결 씨는 "가능하다면, 시위나 집회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를 한다면 서울대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학교와 연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으로 모인 분노를 행동으로 모아 나갈 때 정부와 여당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저들이 받는 압력도 커질 것이다.

성지현

폴라주 66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제일 먼저 없애야 할 일진파: 돈'S 페이스

한나라당 해체 위기

난파선에서 유령선으로 바뀌어가는 돈봉투당

»1면에서 계속

BBK 소방수를 자임해 2008년 공천을 받은 뒤 “이상득의 양아들”이란 소리까지 들었던 고승덕이 공천 갈등 속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 자체가 원심력이 더 커진 현 위기의 방증이다.

이런 상황은 한나라당의 부패 구조와 돈봉투 관행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비대위에게도 치명타가 되고 있다. 박근혜가 반대해 온 해쳐모여 식 재창당론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10일 정두언, 남경필 등 친이계 출신 쇄신파들은 해체 후 재창당이 아니면 탈당하겠다고 박근혜를 압박했다. 사실상 이명박과 결별하자는 것이다.

11일 열린 박세일 신당 창당발기인대회에는 한나라당 쪽 전직 의원과 고위 관료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 당이 한나라당 해체와 분열을 더욱 촉진하는 정거장 구실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사돈통당

이미 돈봉투 의혹이 터지기 전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의 쇄신을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고, 이 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부자정당’이라는 응답이 40퍼센트나 됐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조차 “보수” 용어 삭제에 절반이 찬성했다.



명박과 친박 모두 쪽박찰 날이 임박하고 있다. 틈을 주지 말고 투쟁으로 압박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의 딜레마는 해소되기 힘들다. 아무리 중도층에 구애를 해도 여전히 간한 변화로는 반한나라당 정서를 달래기 힘들 것인 반면, 강경 우파들은 작은 변화마저도 ‘좌파’ 운운하며 반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천 쇄신이 동아줄이 되기도 힘들다. 친박계와 박근혜 자신도 부패한 우파 정

치인들이며 물갈이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한나라당 정강에서 “보수” 용어를 삭제하자는 의견이나 인적 쇄신론에 어정정한 태도를 취해 왔다.

게다가 이런 시궁창에 오려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설사 1급 청정수를 갖다 부어도 결국 시궁창물이 될 뿐이다. 민중당 출신 이재오·김문수도 1996년

신한국당 창당 때에는 성공적인 물갈이 사례였다. 2000년 총선에서 깨끗한 이미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영입 인사는 오세훈이었다.

따라서 저들에게 역겨운 쇼를 하면서 위기를 무마할 시간을 주지말고 밀어붙여야 한다.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비대위는

위터게이트 사건도 처음엔 사건 주범 모두 진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2년 만에 대통령 닉슨이 사임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베트남전 반대 운동과 흑인 인권운동 등이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며 따가운 눈총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좌파 마녀사냥을 확대하려는 조짐도 나타난다. 거짓말과 꼬리 자르기로 디도스와 돈봉투 사건을 적당히 덮어 버리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닉슨을 물러나게 만들었던 위터게이트 사건도 처음엔 사건 주범 모두 진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2년 만에 대통령 닉슨이 사임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베트남전 반대 운동과 흑인 인권운동 등이 정권의 위기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1퍼센트 특권층 정치의 위기를 진보대안세력의 성장 기회로 삼으려면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문성

박근혜 — 이명박을 능가하는 1퍼센트·부패 우파의 대변자

박근혜가 한나라당 ‘쇄신’을 추진하는 현재 상황만큼 어색한 일도 없을 것이다.

지난 4년간 이명박 뒤에 가려져 있었지만 박근혜와 친박계는 친미·친부자·반노동·부패 우익이라는 점에서 친이계를 능가한다.

박근혜는 오랫동안 독재자 박정희의 정치적 계승자임을 자처해 왔다. “[박정희가] 국가에 대해 품으셨던 그 원대한 꿈[을] … 역사 속에서 바른 평가를 받으시게 하는 것, 오매불망 그것만이 하고 싶은 일이었고 또 해야 할 일이었다.”(박근혜 일기 모음집 <고난을 벗삼아 진실을 등대삼아>)

박정희의 독재와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실컷 잘 먹고 나서 그릇 한두 개 깨 것만 가지고 욕을 하는 풍토”(《신동아》 1989년 10월호)라며 간단히 무시했다. 2002년 한나라당에서 탈당해 만든 한국미래연합의 창당일을 5월 16일 [1960년 박정희가 쿠데타를 한 날]로 잡



한나라당에는 밑 애도 없고, 미래도 없다.

으려고도 했다.

박근혜는 광주 민중 수천 명을 학살한 군사독재자 전두환도 “어렵고 혼란의 시기에 나라를 잘 이끌려고 노력한 분”이라고 칭송했다.

1999년에는 ‘재벌 개혁’을 언급한 김대중의 8·15 경축사를 두고 “대통령 주변의 정책 입안자나 참모 가운데 사회주

의적 시각을 지닌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색깔론을 폈다.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는 사학법 개정을 “사회주의 빨갱이 법안”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정수장학회

박근혜는 한나라당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하지만, 박근혜 자신이 비리 의혹 덩어리다.

정수장학회 문제는 박근혜에게 이명박의 ‘BBK’와 같은 존재다. 박정희는 1962년 부산의 한 기업가를 구속한 후 그의 재산을 강탈해 박정희의 ‘정’자와 처육영수의 ‘수’자를 딴 ‘정수장학회’를 만들었다. 박근혜는 이 ‘장물’을 물려받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다.

한나라당 비대위원 이준석조차 “박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일보>의 노조가 편집권 독립과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을 요구하자, 재단은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관련 기사를 막으려고 신문 발행을 중단시켰다.

박근혜는 한나라당 부패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다. 불법 대선자금으로 문제가 됐던 1997년에 박근혜는 선대위 고문이었고, 차떼기 불법선거를 했던 2002년에는 선대위 의장이었다. 검찰은 2002년 대선 직전에 한국미래연합에서 한나라당으로 돌아오면서 2억 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박근혜의 핵심 측근인 서청원은 2008년 ‘공천현금’ 수십억 원을 받고 친박연대 비례대표를 배정했다. 최근에도 박근혜의 측근 의원 이성현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소환됐다.

박근혜 동생 박지만도 삼화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삼화저축은

행 로비 자금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로 흘러들어왔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어, 이번 ‘돈봉투’ 파문이 박지만의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박근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명박에게 밀린 것이다. 우파들조차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차라리 낫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명박의 몰락 속에 다시 박근혜가 우파들의 구원투수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무대의 전면에 나서면서 한미 FTA 비준안 날치기에 앞장서 ‘신로 5적’으로 등극했고, 연 3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조차 반대했으며 국회 차원의 김정일 조문단 구성 제안도 거절했다.

따라서 박근혜는 대세론의 거품이 계속 빠지며 한나라당과 함께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

최미진

민주통합당 고쳐서 쓰기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조직에 NGO 출신 인사들이 대거 결합한 민주통합당은 통합 특수를 어느 정도 누린 듯 보인다.

이 당은 지난해 말부터 2년 반 만에 정당지지를 1위로 올렸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열흘간 모집한 최고위원 본선 시민경선인단 모집에는 무려 80만 명이 나뒀다.

개혁적인 대안 정당을 성장시켜 한나라당과 그 아류 세력의 집권이나 의회 지배를 끝내고 싶은 열망이 민주통합당 가입론과 개혁적 후보 지지로 표출된 것이다. 김진표 같은 X맨들을 제거하고 민주당을 개조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열망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 그런 바람은 초장부터 벽에 부딪혔다. 민주통합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파문에 휩싸인 것이다. 한나라당 의혹 폭로 이후 ‘혹시나’ 하는 의혹의 눈빛이 민주당으로 옮겨가자마자, 당대표 후보가 영남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버렸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돈을 넣으면 표가 나온다 해서 일명 ‘자판기’라고 부른다. 이것은 새천년민주당 전당대회 시절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민주당의 오랜 선거 방법”이라고 털어놨다.

민주당 출신 전직 의원들도 이런 폭로가 사실이라고 뒷받침하고 있다. 유시민은 “금품 살포를 목격한 바도, 경험한 바도 있다”고 털어냈고, 유인태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천의 3분의 1은 돈을 받고 팔지 않았느냐”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NGO 등 시민통합당 출신과 구 민주당 출신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문성근, 이학영 등은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새로운 혁신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적 NGO 출신 세력들이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한나라당 2중대 행위를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출범 후에도 한미FTA 반대 운동을 핑계치고 국회에 등원하고, 레바논 동맹부대 파병안을 소리소문 없이 통과시켜 줬다. 룬스타 감사원 감사 약속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자유 관련 법 개정 약속도 뒤집었다. 미디어럽도 야합했다.

심지어 김진표는 이런 야합에 항의해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전교조와 금융노조 노동자들을 국회 경위를 동원해 끌어내기까지 했다. 이들 중엔 한국노총 몫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인 금융노조 김문호 위원장도 있었다. 자당 최고위원까지 끌어내는 당에서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자판기

이런 한계는 민주당의 기업주 기반에서 비롯한다. 민주당은 두 번이나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와 친제국주의 정책에 충실해 왔다.

그래서 진보신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옮겨간 박용진조차 자신의 최고위원 컷오프 통과를 “자장면 새까만 것 위에 완

두콩 두세 개 없자”는 구색 맞추기 차원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변신을 실제로 개혁을 제공하려는 정치적 책임감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간판과 말이 바뀌는 동안에도 민주통합당은 실천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따라서 민주당의 본색에 눈 감고 완두콩이 되려고 하기보다 민주당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진정한 진보 대안을 추구하는 것이 진실로 노동 대중에게 책임지는 정치다.

정권과 거대여당이 권력형 부패 추문으로 휘청거리고 민주통합당도 돈봉투 의혹으로 자중지란이 된 상황을 진보세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김문성

통합진보당의 성격과 모순을 똑바로 봐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위기를 이용해 민주통합당 같은 기회의 세력보다는 진보적 대안과 진보 세력이 성장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진보정당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진보대통합의 실패가 한 이유일 텐데, 진보대통합을 좌초시키며 결성된 통합진보당마저 지지율이 하락했고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한미FTA 투쟁이 가라앉고 양당 구도가 형성되면서 통합진보당이 시야에서 가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류사회와 언론의 악의적 외면, 민주통합당의 알미운 바람몰이 속에서 나타난 일시적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파고들 수 있는 공백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창당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통합진보당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지지자들에게 감동과 열정을 그다지 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총선을 앞두고 계속되는 급진성 퇴색, 중간 간부들조차 소외된 채 진행되는 일방적 당 운영, 동의와 설득 없이 시행된 당직자 구조조정 등이 그것이다.

통합진보당을 적극 지지하는 <민중의 소리>조차 “진성당원들의 민주적 활력을 전혀 구현하지 못하”는 “하향식 당 운영”과 “현실주의에 급속히 순응하는 듯한 이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기성정당과는 다른, 진보의 독자적 가치와 급진성을 분명히 하면서, 당의 계급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명박 정권의 부패와 위기를 이용해 앞장서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한미FTA 투쟁의 열기가 가장 높았을 때 통합진보당의 지지율도 가장 높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선거공학적 계산에 더 기울는 듯하다. 비판을 거슬러 진행된 통합 과정에 이어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좌파적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통합진보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비판에는 분명히 타당하고 일리있는 부분이 많다.

계급적 기반

원칙있는 좌파라면 기성정당들에 맞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삼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아예 통합진보당을 민주통합당과 다를 바 없는 정당 취급하며 어떠한 지지도 보내지 않는 태도는 옳지 않다. 실제 일부 급진좌파들은 ‘통합진보당은 진보가 아니므로 노동자들이 지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주로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주장이 후퇴했다는 점이다. 물론



통합진보당이 출범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1만 100명이 입당했다. 이들과 척을 질 게 아니라면 비판뿐 아니라 지지도 필요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주장이 민주노동당 시절의 좌파 개혁주의 강령에서 온건 개혁주의 강령으로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령과 이데올로기만 보면 안 된다. 정당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하려면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실천을 봐야 하고, 무엇보다 계급적 기반을 봐야 한다. 강령

이 후퇴했으므로 통합진보당이 ‘반신자유주의 투쟁을 받아 안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는 좌파들은 통합진보당이 창당 직후 바로 한미FTA 반대 투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재정과 인력을 충원하는 당의 계급적 기반을 보면, 통합진보당은 여전히 노동

조합 상근간부층을 고리로 노동계급과 연결돼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다. 일부 진보 인사들의 참여로 민주통합당의 계급적 본질이 바뀌지 않았듯, 일부 참여당 인사들의 참여로 통합진보당의 근본적 성격이 바뀌진 않았다.

그래서 기륭전자 투사 등이 탈당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는 있을 수 없는가

다 함께는 민주노동당이 강령을 후퇴시키고 참여당과 통합하려는 데 맞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투쟁했다. 원칙있는 좌파로서 벌인 다함께의 이런 투쟁 덕분에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우경화 시도가 몇번이나 좌절되고 차질이 빚어졌다.

그러나 반대를 거슬러 참여당과 통합된 상황에서 다함께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비판적 지지’의 관점에서 계속 개입하고 있다. 진정한 혁명가라면 개혁주의 조직과 대중 속에서 작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진보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을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내맡기고 방치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급진좌파들은 다함께의 이런 전술을 비판한다. ‘그런 우경화된 정당을 왜 지지하고 탈당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런 급진좌파들의 주

장에서 몇 가지 모순을 볼 수 있다.

우선 그들은 먼저 참여당과 통합진보당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들은 ‘참여당은 노동자를 탄압한 전임 정부의 계승자들이고 지지할 수 없다는 주장에서 출발해 ‘따라서 참여당과 통합한 통합진보당도 지지할 수 없다’고 비약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참여당과는 다른 개혁주의 노동자 정당이다. 예컨대 최근에 분신한 현대차 활동가도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

솔직하지 않은

그런데 이런 좌파들은 통합진보당뿐 아니라 예전부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은 개혁주의 정당을 지지한 적이 없다. 따라서 ‘강령의 후퇴와 참여당과의 통합 때문에 통합진보당을 더는 지지할 수 없게 됐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는 양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

게다가 이런 좌파들이 막상 민주노동당이 강령을 후퇴시키고 참여당과 통합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행동에는 별 열의가 없었던 것도 아이러니다. 통합이 되면, 좌파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 듯도 하다. 민주노동당의 이데올로기적 후퇴가 전체 노동운동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개혁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과 선긋기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당이 아니라 사회주의 정당을 지지하라고 통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사회주의자의 지도력은 개혁주의 대중과 함께하며 실천 속에서 자신들의 올바름을 입증해 정취하는 것이지, 선포만 한다고 자동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

한편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집단 입당하기도 하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파업에 나선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이 집단 입당했다. 통합진보당은 사회민주주의의 정당과 자유주의 세력이 연합한 인민전선체이면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인민전선체적 성격은 상이한 계급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모순을 낳을 수 있다. 이 모순은 벌써 몇 차례 균열 조짐을 드러냈다. 강령과 당명을 정하는 과정과 총선 후보 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이것이 당장 심각하게 발전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인민전선적 성격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투지가 높아지면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그 수준과 방향은 구체적 상황과 세력 균형에 달려 있을 것이고, 좌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개입해서 방향을 제시하느냐도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따라서 좌파는 비판적 지지의 관점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접촉과 개입을 유지해야 한다. 그 점에서 최근 통합진보당 내의 좌파 활동가들이 ‘진보의 정체성과 노동 중심성을 지키려는 사람들(가)’을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주목된다.

좌파는 통합진보당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과 새롭게 입당하는 노동자들, 기대와 지지를 표하는 노동자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투쟁하고 토론하며 세력을 넓혀야 한다.

전지훈·김재현

민주노총 정치 방침 – ‘진보 다원주의’가 최선의 대안이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정치 방침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정치 방침을 정할 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에 채택한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한다”)은 노동계급이 더는 기성 자본가 정당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1987년 이래 민주노조운동이 낳은 성과였다.

비록 그것이 혁명적 정당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노동

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적 대표체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처럼 양대 자본가 정당만 있는 구조는 불행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기성정당과 분명히 선을 긋고 진보정당과 진보적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점에서 ‘노동조합과 정당이 분리돼야 한다’거나 ‘구체적인 정책에 따라 필요한 정당과 관계를 맺으면 된다’는 주장도 위험하다. 이런 주장은 결국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자성을 해치고 기성 자본가 정당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된다.

물론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로 복수의 진보정당이 등장하면서 ‘배타적

지지’ 방침은 그 의미가 퇴색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2009년 대의원대회에서 ‘진보대통합’을 결의하고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진보대통합은 결국 실패했다.

단결

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며 진보대통합에 찬물을 끼얹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물론 그것을 빌미로 통합 자체를 거부한 진보신당 독자파의 태도도 아쉬웠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에 배타적 지지를 통합진보당에 그대로 승계하자’

며 다른 진보·좌파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봉쇄하는 방침은 노동운동의 분열과 갈등만 야기할 것이다. 정반대로 통합진보당을 지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방침도 분열을 야기하기는 마찬가지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진보 다원주의’를 정치 방침으로 채택해야 한다. 즉, 기성 자본가 정당들에 대한 ‘배타성’을 유지하되,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복수의 진보정당과 좌파 정치세력들로 그 지지를 개방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노동자 단결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선거 방침 또한 이런 ‘진보 다원주의’

관점에서 정해져야 한다. 불가피한 특정 상황에서 야권연대나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진보 후보의 독자적 출마와 그에 대한 지지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미 진보대통합이 실패하고 통합진보당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반목이 발생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번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최대한 민주적인 토론을 보장해야 하고, 잘못된 방침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박성환·전지훈

2012년 세계경제 — 분석과 전망

강동훈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는 2012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유로존 위기 상황을 보면,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의 금융 위기보다 더 큰 금융 위기가 2012년에 몰려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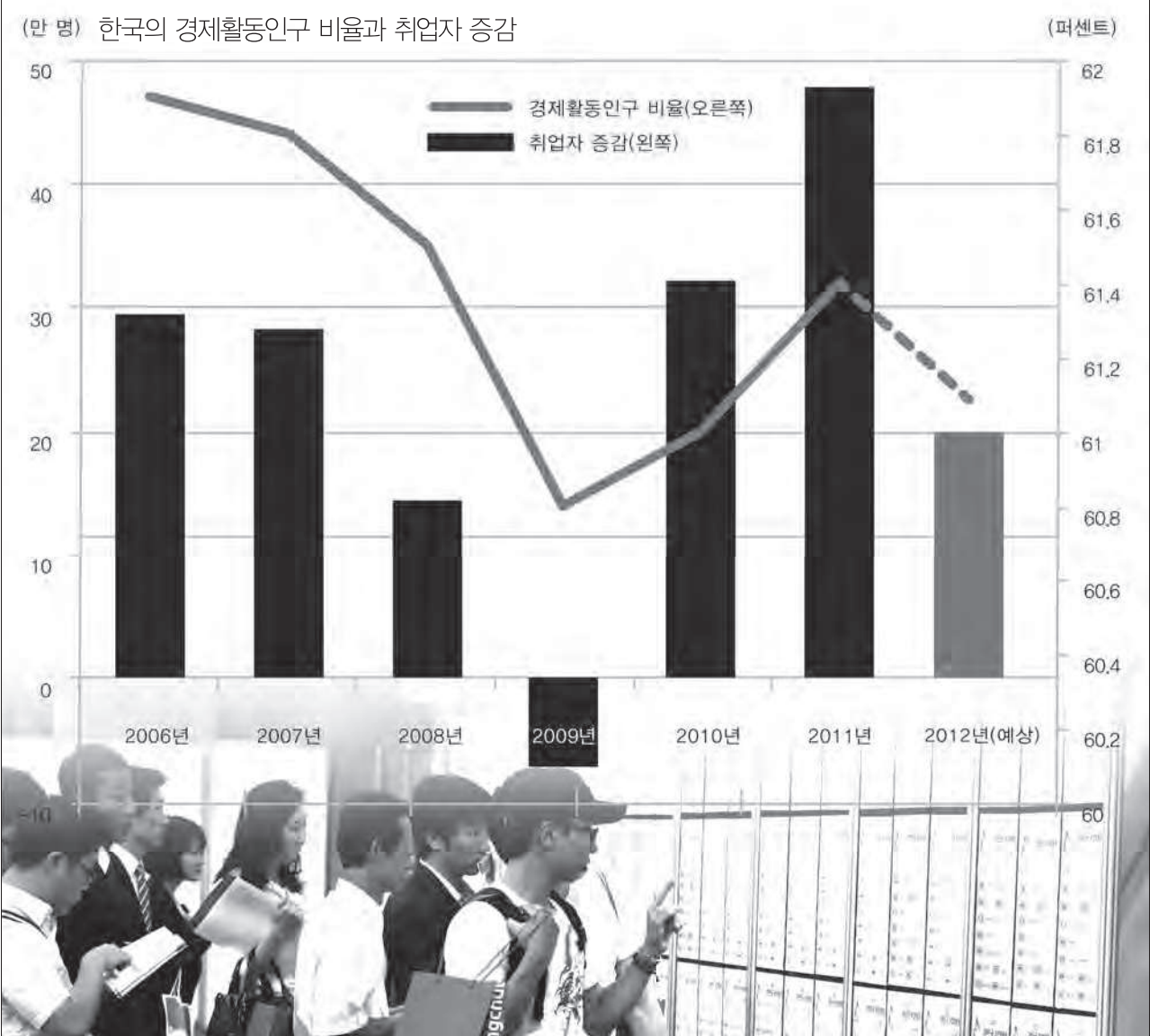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는 포르투갈·아일랜드·스페인·이탈리아로 전염된 데 이어, 프랑스가 최고 신용등급에서 강등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나 무디스 같은 신용평가회사들은 유럽연합(EU) 내 모든 국가의 신용등급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페인에 대한 구제금융설이 나오고,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스 3월 디폴트'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로존은 재정·금융·실물의 위기가 악순환하고 있는 상태다.

유럽 각국은 재정적자를 줄인다고 자축한 내뿜 정책으로 임금과 복지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성장률 하락은 세수를 줄여 재정적자를 다시 늘린다. 금융 위기와 재정적자 위기는 기업이 돈을 구하기 어렵게 하고 수요도 줄여서 결국 실물 경제 위기도 심해지는 것이다.

유로존 위기가 심화하면서 유로화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지적처럼 "지금 고삐를 잡지 않으면 유로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치인들이 감당할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심화하는 전 세계 위기로 2012년에도 일자리 상황은 악화하고 '2030세대'의 불만을 더욱 늘릴 것이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유로존 붕괴에 대비하는 비상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주요 은행들도 유로존 붕괴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는 프랑

스 프랑, 독일 마르크, 이탈리아 리라 등 옛 통화로 돌아갈 경우 각 통화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프랑스 총리 프랑수아 피용은 “유로존

붕괴에 따른 손실은 엄청나다. 경제 강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5퍼센트, 경제 약국은 약 50퍼센트의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유럽 대륙 전체가 파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서 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현 [유로존] 위기에 면역력이 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전 세계 경제가 1930년대와 유사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 지배자들은 위기를 진정시키려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 간 갈등과 무능력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로존 내 최대 경제 강국인 독일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독일 지배자들은 독일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독일 지배자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하는 게 못마땅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유로존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독일은 유로존 위기를 지원할 만큼 큰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IMF가 유로존 위기에 개입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IMF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약 4천억 달러인데, 유로존 위기 진정에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는 2조 유로에 견주면 턱없이 부족하다.

IMF가 재원을 확충하려면 미국이 가장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국가 채무 위기로 제 코가 석 자인 오바마 정부는 IMF의 재원 확충과 유로존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결국, 유로존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에게 간혹·내뿜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해결책이 아닐 뿐 아니라 되레 위기의 악순환만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총파업, 광장 점거 등 계급투쟁을 격화시키며 정치적 격변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 — 발전하는 위기와 저항

세계경제의 또 다른 한 축인 미국의 2011년 경제 성장률은 연초의 전망치였던 3퍼센트에 훨씬 못 미치는 1.5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면서,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2011년 미국 총소득(자산소득+임금소득+정부이전소득) 중 노동소득 비중은 58퍼센트인데, 이는 지난 65년간의 평균치인 63퍼센트에 견줘 크게 떨어진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노동소득이 평균 수준인 63퍼센트라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지금보다 7천4백억 달러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노동자 1인당 5천 달러에 이르는 거금이다. 임금 감소와 높은 실업으로 미국의 공식 빈곤 인구는 15.1퍼센트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인 6.6명당 1명이 빈곤층인 셈이다.

반대로, 미국의 국가 채무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때보다 5조 달러나 늘어, 2011년에 15조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규모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94.9퍼센트), 포르투갈(92.9퍼센트)보다도 높다.

게다가 유럽 위기는 미국 경제

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012년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은 50퍼센트가 넘는다”며 “유럽 국가 한 곳이라도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가면 미국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커지는 빈부격차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지난해 미국 ‘점거하라’ 운동의 배경이었다. 따라서 올해도 정치적 양극화와 급진화는 계속될 것이다.

‘점거하라’ 운동

한편, 중국은 물가·부동산 안정과 성장을 견인, 임금·고용 확대라는 모순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중국의 성장률은 2011년 1분기 9.7퍼센트에서 3분기 9.1퍼센트로 떨어졌다. 2012년 성장률은 8퍼센트대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유럽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 중국 수출이 20퍼센트가 줄어들어 중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 제조업 침체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11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로 전달(50.4)보다 떨어졌다. 중국 PMI가 50 미만(경기 후퇴)을 기록한 것은 지난 2009년 2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2008~09년에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은행들은 대출을 크게 늘렸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지하철·도로·공항 건설 등 지방정부의 인프라 확충에 투입됐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이 채무상환을 못해 중국 은행들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도 여전하다.

수출 감소와 제조업 침체, 부실 대출의 급증은 중국 경제 성장률에 큰 타격을 주고, 실업 문제도 점차 커질 것이다. 2015년까지 도시 지역에서 일자리 1천 3백만 개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대출자 중 2백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세계은행은 중국 지니계수가 0.5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0.4가 넘으면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하다고 해석된다.

부동산을 비롯한 물가의 급등과 빈부격차 확대 등으로 말미암은 대중의 불만은 점차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다. 최근 우칸촌의 투쟁은 그 좋은 사례다. 우칸촌 주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쌓고 관료들을 몰아내서 마을을 해방구로 만들며 투쟁해서 승리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시위가 지난 2003년 6만 건에서 2010년에는 18만 건으로 7년 만에 세곱절이 됐다고 전했다.

한국 — 수출 둔화와 경기 침체

이명박 정부는 2011년과 2012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3.8퍼센트와 3.7퍼센트에 그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월에 4퍼센트대 성장률을 전망하던 것에서 말을 뒤집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최근의 경기 악화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은 “유로존 해법이 상반기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하면 3.7퍼센트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은 지난 11월부터 이미 하강세가 시작된 듯하다. 대EU 수출이 지난해에 견줘 13.8퍼센트나 감소해 11월에는 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도 둔화하고 있다. 11월에 대중국 수출은 6퍼센트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지난 4월(9퍼센트)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 세계 경제의 침체로 한국의 주요 산업들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2008~2009년 위기 때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건설·조선·해운 산업에 더해 반도체·디스플레이·항공 산업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은 세계적인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42인치 크기의 LCD 패널 가격은 2011년 동안 16퍼센트나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미분양으로 건설 산업은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1백 대 건설사 가운데 24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2008~2009년 위기 때 심각한 타격을 받은 조선과 해운 산업에선 2010년 이후 생산이 급증해 배가 넘쳐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해운 산업에 대규모 차입이 필수적이어서 유럽 금융 위기가 전 세계 해운 산업의 줄도산을 초래할 것이란 ‘공포’가 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산업도 안전하지 않다. 예를 들어, 르노삼성차는 12월 24일부터 일주일간 휴무에 들어갔다.

순이익

수출 감소와 성장 둔화로 상장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상장회사 6백12곳 2011년 3분기 실적을 보면, 순이익이 8조 3천5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0.1퍼센트 감소했다.

2011년 3분기부터 수출과 산업 생산이 확연히 떨어지면서, 내년에 투자가 침체할 것으로 예상돼 취업자 증가도 낮아질 것이다. 한국의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2012년 상반기에 유럽 위기가 진정될 것이라고 희망 섞인 예측을 하고 있는데도, 취업자 수는 20여만 명 정도만 늘어 2011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

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자리를 찾는 ‘2030세대’의 불만을 더욱 늘릴 공산이 크다.

게다가 실업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2011년 실질임금은 3.5퍼센트 감소했는데, 2012년에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성장률 견인과 물가 억제라는 모순된 목표로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처한다며 2012년 상반기에 예산의 60퍼센트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목표와 모순된다.

임금 인하, 실업 증대 등 때문에 국내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은 2012년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경총, ‘2012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물가가 오르고 실질임금이 떨어지면서 대출이 증대해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기타 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기타 대출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자 대출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요건이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대출 등으로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 7면으로 이어짐

이집트 혁명이 가야 할 길

아랍혁명 1주년을 맞아해 <레프트21>은 지난 호에 이어 이집트 혁명을 분석하는 기사를 싣는다. 다가오는 1월 25일은 이집트 혁명이 시작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 전 세계적인 연대 시위가 예정돼 있다. 이집트 혁명에서 점차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가 지난달에 발표한 글을 소개한다

이집트 혁명은 매우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그 위험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혁명을 유산시키려는 끈질긴 반혁명 시도가 있다. 반혁명 세력은 종교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해 대중의 관심을 혁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강대 · 경찰 · 군대를 동원해 이데올로기적 · 실제적 영역에서 대중 운동에 보복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경제 위기는 모순적 구실을 한다.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대중의 일부는 항의 시위, 점거 운동, 파업에 나서지만, 동시에 대중의 다른 일부는 반혁명의 무기와 선동 도구가 되기도 한다. 혼돈과 경제 위기를 야기한 것이 바로 혁명 자체라는 논리를 통해서 말이다.

이 결정적 순간에 작용하는 둘째 요소는 이슬람주의자와 자유주의적 개혁주의 정치 세력이다. 이 세력은 혁명을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한다. 기존의 경제 · 사회 시스템은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세력은 최고군사위원회와 옛 정권의 잔존 세력에 추파를 던지고, 자신들이 대중운동을 억제하고 가라앉힐 수 있다고 약속한다. 이 세력은 대중을 향해 자신들이 옛 의회를 통해 대중의 열망과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짓 약속을 한다.

셋째 요소는 물론 대중운동 자체다. 노동자 운동을 선두로 한 빈민과 피억압자들의 저항 운동은 혁명이 시작됐을 때부터 계속 이어졌고 2011년 9월과 10월에는 전에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집트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70만 명이 대중 파업 물결에 참가했다. 이에 더해 수십 년 동안 정권의 체계적인 억압을 당했던 가난한 콥트교도, 시아파 주민 등이 벌인 전례 없는 시위와 점거 농성이 있었다.

현재 현실에 작용하는 세 가지 핵심 세력은 다음과 같다.(물론 이는 다소간 단순화한 그림이다). 첫째로 최고군사위원회, 기업주들, 옛 정권 보안 기구의 잔존 세력이 이끄는 반혁명 세력이다. 반혁명 세력은 혁명적 대중 운동에 엄청난 규모로 무장 공격을 퍼부어 체제의 허물만 바꾸고 옛 정권을 다시 세우려고 열중한다.

둘째로 무슬림형제단이 이끄는 옛 정권의 야당 세력이다. 이 세력은 혁명을 억제하고 유산시켜 의회를 수립되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조직화 능력과 경험, 광범한 대중적 지지에 의존한다.

셋째 세력은 혁명을 지속 · 심화시켜 온전한 사회혁명으로 전환시키기를 바라는 세력이다. 그 선두에는 부상하고 있는 노동자 운동이 있는데, 노동자 운동은 단단하고 전투적이고 의식적이어서 이집트 부르주아지뿐 아니라 국제 무르주아지를 발발 떨게 한다.(전 세계 주요 신문들이 이집트 노동자 운동이 국제적 불안정성을 낳을 위험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보라.)

이집트 혁명의 최근 단계에서 이 세력들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

반혁명 세력과 국가 기구 내부의 균열은 대체로 깊어지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봉합하기도 힘들어지고 있다. 혁명으로 국가 기구는 회



올해 1월 3일 빈민부 시위에 참가한 이집트 여성들

복하기 힘든 큰 타격을 입었다. 여전히 정권이 존재하지만 너무 약하고 그 지도자들은 마비됐고, 두려움에 떨고, 우물쭈물하고, 분쇄되고 있다.(이런 사례로는 경찰 내부의 혼란, 경찰장(警長)들이 일으킨 파업, 사병들의 분열 가능성 등을 놓고 군 수뇌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테러 사태, '정화' 요구에 맞닥뜨려 마비된 사병부, 변호사들이 일으킨 파업 등이 있다.) 여기에 더해 경제 위기가 가하는 압박도 있다. 비록 정권은 위기를 이용해 중간계급의 적개심을 부채질하고 혁명을 꺾어먹으려 하지만, 정권의 허약함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혁명

물론 최고군사위원회와 반혁명 세력은 지난 몇 달 동안 학살을 벌이고,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노동자 운동과 파업을 포함한 혁명적 세력에 반대하는 언론 캠페인과 선동을 늘리는 등 주도권을 장악하고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아가려고 애썼다. 또한 선거 기구를 이용해 저항세력을 분열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다. 그리고 의회라는 경기장, 특히 이집트 혁명이라는 자신의 여파가 가장 적었던 이집트 상층부 영역에서 국민민주당(NDP)이 주전 선수로 활약하는 상황으로 되돌아가게(제한된 수준에서라도) 하려고 애썼다.

이런 요소들의 발전은 이집트 혁명에 위험 요소이고, 이 요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고군사위원회는 지금 당장은 혁명적 세력, 특히 노동계급과 빈민들을 광범하게 직접적으로 공격할 능력이 없다. 이집트 대중이 혁명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과 전투성은 쉽게 깨뜨릴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군대와 대중이 직접적으로 충돌한다면 군대가 분열할 위험이 있고, 반혁명 프로젝트는 붕괴하고 심지어 최고군사위원회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선거와 개혁주의 정치 세력이 작용한다. 최고군사위원회에게는 이집트 거리에서 어느 정도 신망이 있어 개혁과 변화를 약속하며 대중의 분노를 흡수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그것이 새로 구성된 의회가 할 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 선거를 무산시키는 것

의 자들이 참가하기를 거부한 것을.

군부가 권력에서 손을

을 떼고 나라 운영권을 이슬

람주의자들에게 쉽게 내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군부는 무바

라크 시대에 나라 경제를 암처럼 지배했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패배한 기업주와 투자자

들의 이익을 지킬 뿐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는

농장, 공장, 호텔을 포함해 국가 경제의 30퍼

센트를 지배했고, 그곳에서 청년 병사들은 무

보수로 일해야 했다. 게다가 군부는 해외 원조

로 들어오는 막대한 국방비도 주물렀다.

그러나 최고군사위원회, 순전히 장식품에

그치는 '자문위원회[최고군사위원회가 설립

한 위원회]에 참가하기로 한 일부 자유주의

세력, 이슬람주의 진영의 무슬림형제단과 살

라피루주의자들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합의의 목적은 이 세력들이 모두 케이크를

한 조각씩 나눠 갖는 것이다(앞에서 언급했듯

이 지금까지 상황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

중의 도움 없이 말이다. 지난 11월 자유주의

자와 이슬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대중을 통

제할 수 없고 대중운동이 최고군사위원회 자

체를 타도하자는 요구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대중에게서 배웠다.

혁명을 유지하고 심화시키고자 하는 세력

들은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

다. 혁명적 세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블록으

로 나눌 수 있다(비록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유류가 있을 것이지만).

첫째 블록은 빈민 · 하층민 · 실업자 청

년들로, 이들은 독립적 청년 조직과 아나

키스트들과 관련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초기부터 혁명에 참여했고, 순교자와 부상

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최고군사

위원회와 경찰에 직접 복수를 하려 하고,

6월 28일 전투, 모하메드 마흐무드 거리

전투, 7월 8일과 11월 19일 점거 시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은 혁명적 용맹

함의 대명사이고, 군부 지배 타도, 경찰 정

화, 군사 재판 중단, 순교자의 유가족과 부

상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직접적으로 요구

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요구를 제

기하하는 않았고, 운송 노동자나 교사 노

동자의 파업 같은 노동자 운동에 대한 연

대를 건설하지 않았다.

그러고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1월 혁명 와

중에 이슬람주의자들이 오마르 술레이만과 합

계 않아 협상했던 것을, 혁명 뒤 자신들의 이

익을 바라고 노동자 파업을 공격하는 데서 이

슬람주의자들이 했던 구실을, 최고군사위원회

가 종교 간 갈등을 이용하려 했던 일을, 이슬람

주의자들이 최고군사위원회를 도와 헌법 개

정을 통과시키려 했던 일을, 그리고 5월에 열

린 '2차 분노의 금요일' 시위와 7월 8일과 11월

19일에 있었던 두 차례 점거 시위에 이슬람주

의 자들이 참가하기를 거부한 것을.

군부가 권력에서 손을

을 떼고 나라 운영권을 이슬

람주의자들에게 쉽게 내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군부는 무바

라크 시대에 나라 경제를 암처럼 지배했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패배한 기업주와 투자자

들의 이익을 지킬 뿐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는

농장, 공장, 호텔을 포함해 국가 경제의 30퍼

센트를 지배했고, 그곳에서 청년 병사들은 무

보수로 일해야 했다. 게다가 군부는 해외 원조

로 들어오는 막대한 국방비도 주물렀다.

그러나 최고군사위원회, 순전히 장식품에

그치는 '자문위원회[최고군사위원회가 설립

한 위원회]에 참가하기로 한 일부 자유주의

세력, 이슬람주의 진영의 무슬림형제단과 살

라피루주의자들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합의의 목적은 이 세력들이 모두 케이크를

한 조각씩 나눠 갖는 것이다(앞에서 언급했듯

이 지금까지 상황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

중의 도움 없이 말이다. 지난 11월 자유주의

자와 이슬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대중을 통

제할 수 없고 대중운동이 최고군사위원회 자

체를 타도하자는 요구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대중에게서 배웠다.

혁명을 유지하고 심화시키고자 하는 세력

들은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

다. 혁명적 세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블록으

로 나눌 수 있다(비록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유류가 있을 것이지만).

첫째 블록은 빈민 · 하층민 · 실업자 청

년들로, 이들은 독립적 청년 조직과 아나

키스트들과 관련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초기부터 혁명에 참여했고, 순교자와 부상

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최고군사

위원회와 경찰에 직접 복수를 하려 하고,

6월 28일 전투, 모하메드 마흐무드 거리

전투, 7월 8일과 11월 19일 점거 시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은 혁명적 용맹

함의 대명사이고, 군부 지배 타도, 경찰 정

화, 군사 재판 중단, 순교자의 유가족과 부

상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직접적으로 요구

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요구를 제

기하하는 않았고, 운송 노동자나 교사 노

동자의 파업 같은 노동자 운동에 대한 연

대를 건설하지 않았다.

그러고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1월 혁명 와

중에 이슬람주의자들이 오마르 술레이만과 합

계 않아 협상했던 것을, 혁명 뒤 자신들의 이

익을 바라고 노동자 파업을 공격하는 데서 이

슬람주의자들이 했던 구실을, 최고군사위원회

가 종교 간 갈등을 이용하려 했던 일을, 이슬람

주의자들이 최고군사위원회를 도와 헌법 개

정을 통과시키려 했던 일을, 그리고 5월에 열

린 '2차 분노의 금요일' 시위와 7월 8일과 11월

19일에 있었던 두 차례 점거 시위에 이슬람주

의 자들이 참가하기를 거부한 것을.

군부가 권력에서 손을

을 떼고 나라 운영권을 이슬

람주의자들에게 쉽게 내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군부는 무바

라크 시대에 나라 경제를 암처럼 지배했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패배한 기업주와 투자자

들의 이익을 지킬 뿐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는

농장, 공장, 호텔을 포함해 국가 경제의 30퍼

센트를 지배했고, 그곳에서 청년 병사들은 무

보수로 일해야 했다. 게다가 군부는 해외 원조

로 들어오는 막대한 국방비도 주물렀다.

그러나 최고군사위원회, 순전히 장식품에

그치는 '자문위원회[최고군사위원회가 설립

한 위원회]에 참가하기로 한 일부 자유주의

세력, 이슬람주의 진영의 무슬림형제단과 살

라피루주의자들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합의의 목적은 이 세력들이 모두 케이크를

한 조각씩 나눠 갖는 것이다(앞에서 언급했듯

이 지금까지 상황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

중의 도움 없이 말이다. 지난 11월 자유주의

자와 이슬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대중을 통

제할 수 없고 대중운동이 최고군사위원회 자

체를 타도하자는 요구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대중에게서 배웠다.

혁명을 유지하고 심화시키고자 하는 세력

들은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

다. 혁명적 세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블록으

로 나눌 수 있다(비록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유류가 있을 것이지만).

첫째 블록은 빈민 · 하층민 · 실업자 청

년들로, 이들은 독립적 청년 조직과 아나

키스트들과 관련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초기부터 혁명에 참여했고, 순교자와 부상

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최고군사

위원회와 경찰에 직접 복수를 하려 하고,

6월 28일 전투, 모하메드 마흐무드 거리

전투, 7월 8일과 11월 19일 점거 시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은 혁명적 용맹

함의 대명사이고, 군부 지배 타도, 경찰 정

화, 군사 재판 중단, 순교자의 유가족과 부

상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직접적으로 요구

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요구를 제

기하하는 않았고, 운송 노동자나 교사 노

동자의 파업 같은 노동자 운동에 대한 연

대를 건설하지 않았다.

그러고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1월 혁명 와

중에 이슬람주의자들이 오마르 술레이만과 합

계 않아 협상했던 것을, 혁명 뒤 자신들의 이

익을 바라고 노동자 파업을 공격하는 데서 이

슬람주의자들이 했던 구실을, 최고군사위원회

가 종교 간 갈등을 이용하려 했던 일을, 이슬람

주의자들이 최고군사위원회를 도와 헌법 개

정을 통과시키려 했던 일을, 그리고 5월에 열

린 '2차 분노의 금요일' 시위와 7월 8일과 11월

19일에 있었던 두 차례 점거 시위에 이슬람주

의 자들이 참가하기를 거부한 것을.

군부가 권력에서 손을

을 떼고 나라 운영권을 이슬

람주의자들에게 쉽게 내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군부는 무바

라크 시대에 나라 경제를 암처럼 지배했고

지금은 정치적으로 패배한 기업주와 투자자

들의 이익을 지킬 뿐 아니라, 자신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는

농장, 공장, 호텔을 포함해 국가 경제의 30퍼

센트를 지배했고, 그곳에서 청년 병사들은 무

보수로 일해야 했다. 게다가 군부는 해외 원조

로 들어오는 막대한 국방비도 주물렀다.

그러나 최고군사위원회, 순전히 장식품에

그치는 '자문위원회[최고군사위원회가 설립

한 위원회]에 참가하기로 한 일부 자유주의

세력, 이슬람주의 진영의 무슬림형제단과 살

라피루주의자들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 합의의 목적은 이 세력들이 모두 케이크를

한 조각씩 나눠 갖는 것이다(앞에서 언급했듯

이 지금까지 상황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

중의 도움 없이 말이다. 지난 11월 자유주의

자와 이슬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대중을 통

제할 수 없고 대중운동이 최고군사위원회 자

체를 타도하자는 요구를 발전시킬 수 있음을

대중에게서 배웠다.

혁명을 유지하고 심화시키고자 하는 세력

들은 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

다. 혁명적 세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블록으

로 나눌 수 있다(비록 여기에는 불가피하게

유류가 있을 것이지만).

첫째 블록은 빈민 · 하층민 · 실업자 청

년들로, 이들은 독립적 청년 조직과 아나

키스트들과 관련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초기부터 혁명에 참여했고, 순교자와 부상

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최고군사

위원회와 경찰에 직접 복수를 하려 하고,

6월 28일 전투, 모하메드 마흐무드 거리

전투, 7월 8일과 11월 19일 점거 시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은 혁명적 용맹

함의 대명사이고, 군부 지배 타도, 경찰 정

화, 군사 재판 중단, 순교자의 유가족과 부

상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직접적으로 요구

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요구를 제

기하하는 않았고, 운송 노동자나 교사 노

동자의 파업 같은 노동자 운동에 대한 연

대를 건설하지 않았다.

그러고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1월 혁명 와

중에 이슬람주의자들이 오마르 술레이만과 합

계 않아 협상했던 것을, 혁명 뒤 자신들의 이

익을 바라고 노동자 파업을 공격하는 데서 이

슬람주의자들이 했던 구실을, 최고군사위원회

학교폭력 —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

“폭력적인 경쟁 사회가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교폭력 때문에 대구의 중학생이 자살한 날은 바로 일제고사가 있던 날이었다. 이 사실은 최근 떠들썩한 학교 폭력 문제의 배경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런데 경쟁 교육을 강화하며 이런 상황을 만든 진정한 가해자인 정부와 보수 언론은 문제를 엉뚱한 곳으로 몰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처벌 강화만을 강조한다. 보수 언론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처벌이 금지되고 교권이 추락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며 거짓 선동을 하고, 이에 부응해 서울시 교육청은 얼마 전에 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를 신청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문제를 심각한 레임덕 위기를 가리고 사회 분위기를 경색시키는 계기로만 활용하려는 듯하다. 이들에게는 학교폭력 속에 괴로워하고 상처받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영혼은 안중에도 없다. 이 문제의 진정한 원인과 대안을 들으려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을 만났다.

부천에서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서지에 교사는 학교 폭력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말했다.

“제가 본 한 학생은 앞에 앉아 있는 아이의 허벅지를 유리로 그어서 몇 바늘을 꿰매게 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다른 애들 데려와서 [물건] 훔치는 것도 시키고요.

“그런데 그 애가 포스터를 만드는 시간에 재개발 반대 포스터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 동네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서 북새통이었어요. 그런 걸 보니가 사회 분위기가 이 학생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고, 결국 답습이 돼 내려 오는구나 싶었어요.

“예전에 박노자 씨가 쓴 ‘아이들을 죽이는 사회’라는 글을 봤어요. 쌍용차에서 몇 명이 자살을 하고 재능교육에서 4년 내내 투쟁을 해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폭력과 죽음을 배우지 않았냐 하는 글이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중학생을 가르치는 김연오 교사도 깊이 공감하며 말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많은 부모님들이 비정규직이에요. 경제 위기에 가장 불화가 심각하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제대로 된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성적이 낮아 인정받지 못하면 결핍이 더 심화돼요.”

실제로 경제 위기 고통이 심할수록 청소년 자살은 증가한다. 1983년부터 2010년까지 10대 청소년은 해마다 평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진압 아이들에게 이런 폭력을 가르치고, 폭력으로 노동자를 짓밟는 자들이 누구를 비난하는가

균 3백68명이 자살했지만, 그중에서 IMF 경제 위기의 정점이던 1998년에는 4백60명,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했던 2009년에는 4백46명으로 자살이 급증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보듬어 안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기 힘들어요. 학교 수업은 너무 지루하고, 교사들은 규율만을 강조하고, 거기서 해소하지 못하는 소외감이 일탈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김연오 교사가 말했다.

“지금은 학교가 숨 돌릴 틈 없이 돌아

가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줘요. 교과도 뻘뻘하고, 정기고사·일제고사 등 평가가 많아지니까 진도 빼기도 어려운 거예요.”

보수 언론은 ‘교사가 매를 못들게 하니’ 이런 일이 생겼으며 악선동한다. 그러나 인천에서 중학생을 가르치는 조수진 교사는 처벌은 대안이 아니라고 했다.

“제가 맨 처음 한 달은 매를 들었는데 저도 힘들었지만,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내가 체벌로 다스리면 결국 또 다른 폭력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놔다고 이야기 했어요. 제가 매를 내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 주니



교문지도를 받는 학생들 폭력적인 학교가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르쳐 왔다.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이 힘들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이 되고, 태도가 나아지고요.”

김연오 교사는 “장에 아이거나, 한부모 아이, 외모가 뚱뚱한 여학생이거나 동성애자인 학생들이 괴롭힘의 표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회적 편견이 학생들에게도 반영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왜 필요한지 보여 준다.

여러 교사들은 정부가 경찰력을 늘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정부에서 초등학교를 가르치는 이상호 교사가 말했다.

“폴리스를 도입하려면 청와대 폴리스, 국회 폴리스, 사법부 폴리스를 도입해야죠. 아이들도 쌍용차에서 무자비하게 노동자들을 진압한 것 등을 보고 폭력을 배운 건데 그런 어른들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아이들한테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스쿨 폴리스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가르치는 박태현 교사도 처벌 강화를 반대했다.

“그렇지 않아도 공부 못하고 문제가 있다고 낙인 찍힌 애들에게 처벌까지 강화하면 나는 처벌받은 애, 사회에서 버림받은 애로 돼 버려요. 그런 경험이 복수심과 증오심으로 자라서 더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하려면 행정 업무를 교사와 구별시키고, 교사를 늘려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한 반에 35명, 38명 되는 아이들을 한 번 상담하기도 힘들어요.”(조수진 교사)

실제로 이번에 자살한 대구 중학생의 어머니도 “교사들이 ‘잡무·성적’에 매달려 인성지도에 한계”가 있다며 “교사가 생활지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부담부터 덜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교사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애들끼리 소통하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해요. 학급에서 단합대회로 야구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저희 반에서 일진이라고 불리는 애들이랑 ‘찌질이’라고 불리는 애들이 다 같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서로 응원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협력하는 기회가 많이 제공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도를 빼기 급급하고,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려고 막 문제풀이를 해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 간의 협력을 전혀 이끌어 낼 수 없어요.”

박태현 교사도 공감했다.

“학교폭력을 정말 없애려면 수많은 개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줘야 해요. 다시 말해서 경쟁을 없애고 협력을 강화해야 해요.”

“최소한 한 학년에 한두 명씩은 상담교사가 있어야 해요. 지금 많은 상담교사가 비정규직이고, 아이들의 고민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진학지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바뀌어야죠.

“서로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아이들이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어요.”(이상호 교사)

김연오 교사는 “경쟁교육을 반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쟁 체제가 잘못됐고, 학생들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도 훌륭한 교육이 될 거라고 봐요.”

박태현 교사도 “평범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FTA 반대 투쟁, 그리고 교육과정을 어렵게 만든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을 없애려고 투쟁해야 한다고 봐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친 경쟁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교육의 근원인 경쟁적이고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1980년에 창립할 때부터 아이들이 성적 때문에 비관자살한 일에 맞서 0교시와 야자를 없애기 위해 투쟁한 훌륭한 전통이 있다. 이번 일을 경쟁 교육에 맞서 투쟁의 고삐를 더욱 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선영

학교폭력 처벌 강화한다는 정부는

몽둥이를 든 도둑이다

이상호 전교조 교사

초등학교 5학년 점심시간. 한 남자 아이는 여자 아이를 향해 “이 씨××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한다. 담임인 내가 제지했지만 남자 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여자 아이와 마주앉은 남자 아이는 젓가락을 흥기처럼 잡고 여자 아이의 얼굴을 찍으려 했다. 여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묵묵히 밥을 먹고 있다.

여자 아이는 이른바 우리 반 ‘왕따’였다. 외모가 좀 덜 청결하고 영악하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

나는 남자 아이에게 여자 아이한테 사과하라고 했다. 남자 아이는 “아이, 씨××” 욕을 내뱉으며 거부했다. 거듭된 나의 지

도에 남자 아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함께 악을 쓰기 시작했다.

교사인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나는 남자 아이를 따로 데리고 가 상담을 시작했다.

남자 아이가 화가 난 이유는 간단했다. 그 아이가 왜 하필 밥맛 떨어지게 자기 앞에 서 있었냐는 것이다. 남자 아이의 어머니가 학교로 오셨다. 어머니 앞에서 남자 아이는 그 여자 아이가 우리반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젓가락으로 왜 찍으려고 했냐고 물어보니 영화에서 봤다면서 그렇게 죽이고 싶었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이런 일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다른 아이들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로 이 여자 아이를 괴롭혔다. 대놓고

아무나 여자 아이에게 욕을 했고, 때리고, 조롱하는 낙서를 했다.

남자 아이의 어머니는 내게 사과를 하고 아이를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아이를 데려가셨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이런 일은 또 반복됐다.

여자 아이는 엄마가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고 있었고 아빠는 먼 지방에서 일을 하셨다. 여자 아이의 아빠와 통화를 해서 여자 아이의 이런 현실을 말 씀드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겨울부터 늦봄까지 계속 입던 점퍼가 바뀌었을 뿐이다.

수없이 가해 학생들과 그 아이들의 어머니들과 상담을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다. 경험상 더 가해학생과 그 부모

에게 ‘개입’을 하면 교사가 오히려 민원 제기를 당할 수 있다. 멀쩡한 학생(가해자)을 이상한 학생으로 몰아간다는 이유로.

최근 왕따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온 사회가 학교폭력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그리고, 교사가 아이에게 관심을 덜 가진 것이 문제였다고 교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앞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더구나, 학교폭력의 책임은 교사 개개인이나, 일제고사 등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 숨 쉴 틈 없이 몰아세운 어른들에게 있다. 이제 형사법상 미성년자를 열두 살로 낮춰 가해 아이들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한다. 학교 폴리스를 도입해

아이들을 통제하겠다고 한다.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이다.

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보여 준 모습은 촛불시위대를 짓밟고 물대포를 쏘며, 용산세입자들을 불태워 죽이고, 쌍용차 노동자들을 폭력 진압하는 모습이었다. 폭력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경쟁의 지옥으로 몰아붙인 어른들을 단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이들이 물고문을 어디에서 배웠겠는가?

왕따 중학생의 자살 사건이 정말 가슴 아프다면, 학교교육과정 개정, 학급당 인원 감축, 잡무 감축, 상담교사 증원 등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아이들만 처벌하려 할 때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발전’할 것이다.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⑦

자본주의와 소외

얼마 전 대구의 중학생 자살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이른바 ‘왕따’와 폭행, 자살, 학업 스트레스 등이 또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모들은 왜 자식들에게 저토록 공부를 강요할까, 왜 일부 청소년들은 서로 끔찍한 관계에 놓일까, 이런 뒤틀린 관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이런 물음은 자본주의가 낳는 인간의 소외에 주목하게 한다.

청소년들한테는 특히 더 심각하지만, 사실 소외는 우리 일상의 일부다. 우리가 쓰는 ‘소외’의 뜻은 주로 ‘외로움’, ‘따돌림’, ‘외톨이’ 같은, 개인의 처지나 심리를 가리킨다.

그러나 인간의 소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통제력의 상실’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 목표, 행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외부의 존재(세력)가 그것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노동의 소외

마르크스는 소외가 인간의 의식이나 감정의 문제이기 전에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사실임을 역설했다.

그는 무엇보다, 노동이 소외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특별히 강조했다. 계급사회가 등장하면서 사회의 소수가 잉여 생산물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자본주의가 이런 노동의 소외를 더 본격화·체계화했다는 것이다.

그가 처음이자 가장 포괄적으로 자신의 소외 이론을 설명한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박종철출판사, 1991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이 만든 생산물로부터 소외된다는 점, 자신이 만들었는데도 그 제품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은 부자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굶핍을 생산한다. 그것은 궁전을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움막집을 생산한다. 그것은 미(美)를 생산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는 불구를 생산한다.”

노동자들이 왜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소외될까? 생산물은 생활활동의 결과인 만큼, 그들이 이미 생산행위(노동 과정)에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임금노동을 이렇게 묘사한다. “노동이 노동자에게 외적이며, 즉 그의 본질에 속하지 않는다”, “노동이 마치 페스트처럼 기피된다”, “노동이 노동자의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것이[다]”, “노동자는 노동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다”, “그의 노동은 그러므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요된 것, 강제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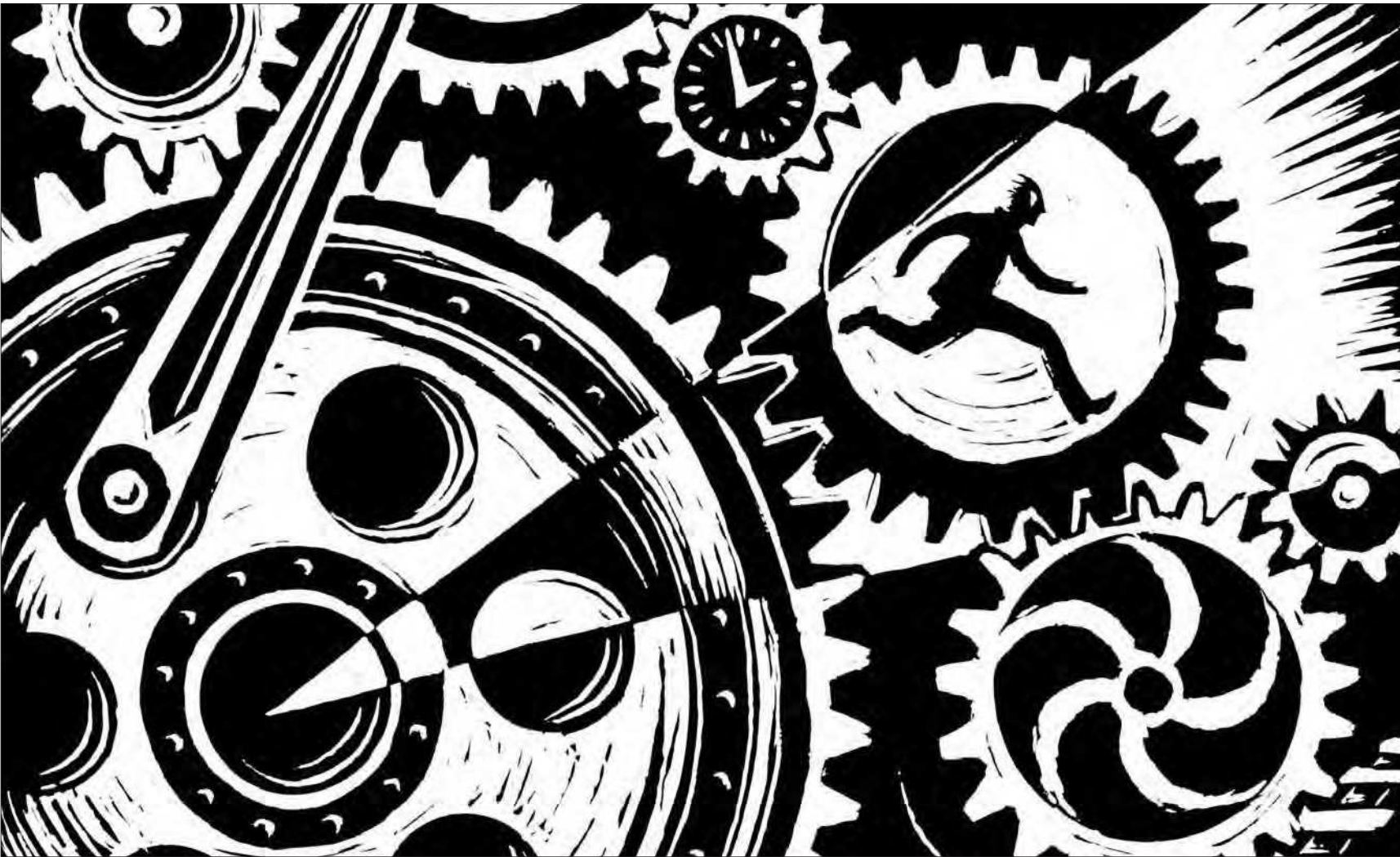


사진 출처: 에릭 드루커

자본주의는 인간을 경쟁과 축적 체제의 부속품으로 만들고, 인간의 본질을 소외시킨다. 소외를 낳는 체제야말로 온갖 폭력과 차별, 인간성이 뒤틀려 벌어지는 일들의 근원이다.

동이다.” 노동자가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가의 이윤을 위해 생산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는 그의 노동 속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며, 자유로운 육체적·정신적 에너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고행으로 그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고, 그의 정신을 파멸시킨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노동 바깥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자신과 함께 있다고 느끼며, 노동 속에서는 자기가 자신을 떠나 있다고 느낀다.”

노동 생산물과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는 인간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인간으로부터의 소외와 연결되고 결합된다.

우리는 자동차 ‘모닝’을 타면서도 그것을 동회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만들었고 거기에 장착된 내비게이터를 기룡전자 노동자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포함해 만물이 상품화되고, 인격조차 등급이 매겨지고, 서로 경쟁에 얽매이고, 인간관계조차 뒤틀리고 왜곡되기 때문이다.

소외를 말할 때 왜 ‘노동의 소외’를 강조하고 여기에서 출발하는가? 노동이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노동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고, 노동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역사와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

따라서 노동이 소외된다는 것은 생산자들이 자신이 창조해 낸 물질적 세계, 자신의 인간본성, 자신이 속한 사회, 노동으로써 관계 맺은 자연으로부터 모두 소외된다는 뜻이다.

자본주의는 역사상 최초로 직접 생산자인 노동자들을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그들은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야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이것이 소외된 노동의 뿌리다.

숙명

그러나 소외는 단지 노동자만 겪는 것이 아니다.

소외는 노동 바깥의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기술인 노력의 결과물이 때때로 인류와 환경을 위협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낀다. 예술가들은 스스로 창조한 예술품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대되는 현실에 종속돼 있다. 청소년들은 친구를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입시지옥에 내몰리며 좌절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복지·보건·교육·주택·교통·환경·군비·무역협정 등 국가나 국제적 차원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돼 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불공정하거나 재앙적이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상당수의 정신적·육체적 질병, 종교와 마약 중독, 자학, 자살 등이 모두 ‘통제력 상실’이라는 소외와 무관하지 않다. 소외 때문에 가장 친밀한 관계마저 상처받고 왜곡되며, 사람들은 서로 아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얼마 전, 매질까지 하며 공부를 강요하던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한 고3 학생

의 사연은 가장 비극적 사례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소외를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소외를 이해하는 데서 마르크스가 한 핵심적 기여는 그것이 숙명이 아니라는 점, 즉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불가사의한 결과가 아니라, 의식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억압과 착취에 맞선 사람들의 집단적 행동은 소외에 맞선 저항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은 입시지옥과 인권 억압에 맞선 집단적 저항 속에서,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맞선 단결 투쟁 속에서 무력감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다. 소외와 단절이 아니라 우애와 동질감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사회복지 향상, 억압적 제도 완화 등으로는(사회적 진보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런 요구와 투쟁을 적극 지지해야 마땅하지만) 소외를 완전히 지양할 수 없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혁명적 변화, 즉 사회와 생산에 대한 노동자와 피억압 민중의 집단적 통제만이 소외의 뿌리를 뽑아 인간 본성의 진정한 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박종호

“경쟁을 없애는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합시다”

조영선 교사는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인권 교육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인권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학생 인권 문제를 다룬 《학교의 풍경》을 저술하고, 《인권, 교문을 넘다》를 공저했다.

이번에 불거진 학교폭력은 경쟁 교육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학교 교육의 폭력성이 아이들 안에 농약처럼 쌓여 발현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은 학생들간의 폭력만 집중 부각해요. 이는 오히려 진정한 폭력을 가립니다.



영선 조

법률만 대처하는 것은 사실 힘 약한 사람들만 그 엄벌의 타겟이 되고 전체 사람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부모가 ‘뻥’이 있으면 경찰에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하겠죠. 가난한 아이들만 징벌을 받고, 학교에서 아웃 당하고, 사회에서 더 큰 범죄자가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드러난 폭력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호하다는 것은 문제를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 오셔서 적당히 돈으로 뺨질하

는 식이 아니라, 부모 상담도 받게 하고,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한 원인에 대해 장기적인 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권 교육 등을 받고 돌아오게 해서 회복과 복귀를 전제로 하는 조치가 돼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를 고려해서 접근 금지 같은 명령을 내려야죠.

아이들은 매니저형 엄마들에 의해서 관리되거나 아예 방치되는 양극단으로 나뉘어 있어요. ‘케어’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방치된 아이들은 학교와 사회에 대한 반감만 크죠.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빈곤, 문화적 빈곤을 학교에서 채워 줘야 해요. 그리고 입시제도가 학생들을 살인적인 경쟁으로 몰지 않게 해야죠. 이렇게 장기적인 방책으로 가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금 일제고사 등 쓸데없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방과 후에 다양한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도록 사회적인 의지를 모으고 투쟁해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정선영

정부를 위협하는 시리아 민중 항쟁

사이먼 아사프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책갈피) 공저자

시리아 반정부 투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수도 다마스쿠스와 시리아 최대 도시인 알레포로 확산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아랍연합 감시단이 입국한 것에 힘을 얻었다. 노동자 수천 명이 파업을 벌이는 동안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그러나 전국을 휩쓰는 변화의 움직임에 직면해 시리아 정부는 종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운동을 약화시키려 간간힘을 쓰고 있다.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에게 충성하는 군대들은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고 거의 매일 40여 명이 죽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살인자들을 ‘사비하’, 즉, 유령이라고 부른다.

시리아 정부는 종단 살인 조직들을 지원했고, 이들은 수니파 무슬림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알라위 주거지에 버려 종단 간 갈등을 악화시키려 했다.

아사드는 수니파 무슬림들이 소수파인 알라위 공동체를 상대로 보복에 나서면 알라위들 — 통치 집단, 고위 장교, 사비하는 주로 알라위에서 총원된다 — 이 정권에 충성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시리아의 다양한 종교와 종족 집단들은 혁명의 이름 아래 광범하게 단결해 있다.

종단 살인 부대에 대응해 많은 알라위 저명 인사가 공개적으로 혁명을 지지하고 나섰다.

혁명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시리아 정부는 커다란 곤경에 빠졌다. 군이 분열했고 탈영병이 속출하

고 명령 불복종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반란 과정 속에서 자유시리아군이 탄생했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친정부 보안군으로부터 혁명 참가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유시리아군은 휴전 협상 전까지 친정부 보안군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시리아군은 당장은 정규군을 물리칠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혁명을 군사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정부를 유리하게 만들 것이다.

자유시리아군과 [서방과 동맹을 추진하는] 시리아국민위원회의 형성은 시리아 혁명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잘 보여 준다.

이 두 단체는 지역협의위원회로 대표되는 기층 혁명 지도부에 도전하고 있다. 지역협의위원회는 ‘존엄성을 얻기 위한 파업’이라 불리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주도하면서 주도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 파업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시리아 주요 대도시로 확산됐다.

지역협의위원회는 서방과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대중 시위를 더 확대해야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알아사드 지지자들은 그가 아랍 저항 조직들을 지원해 온 점을 지적하며 정부를 두둔한다. 그들은 시리아 혁명이 서방 정부와 친서방 아랍 정부들의 음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중상모략은 최근 하마스가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하마스는 본부를 다마스쿠스에서 카이로와 카타르로 옮기려 한다.

물론, 서방 열강들이 알아사드의 몰락에서 이득을 취하려 할 것은 분명하다. 아랍연합이 시리아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서방 열강의 개입 위험이 현실화되는 듯이 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범한 시리아인들이 ‘서방의 줄’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사실, 아랍연합은 알아사드 정권에게 살길을 열어 주려 하고 있다. 알아사드는 자신의 ‘개혁’에 대한 아랍연합의 지지를 기대하고 아랍연합 감시단의 입국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역풍에 직면했다. 감시단 입국은 시위 참가자들의 사기를 높여 줬고, 감시단이 가는 곳마다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감시단은 일주일 동안 활동한 뒤 알아사드 정권이 탄압의 고삐를 늦추려 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알아사드 정권에게 더 큰 문제는 반란이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도시는 최근까지 ‘친정부’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친정부 군인들은 다마스쿠스 노동계급 주거지에서 노동자들과 전투를 치르고 있다. 한편, 알레포의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반정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리아 혁명은 아랍을 휩쓰는 변화 물결의 일부다. 시리아 혁명의 성공은 서방과의 거래가 아니라 혁명을 심화시키는 것에 달려있다.

다마스쿠스와 알레포가 정권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알아사드 정권의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출처 영국군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84호 번역 김용욱



지난해 12월 30일 시리아 반정부 투쟁 옛 이슬람 제국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분출한 반란은 독재자 알아사드의 최후를 앞당길 것이다.

나이지리아를 뒤흔든 총파업

바바 예

1월 9일부터 나이지리아 노동자들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첫 날은 대성공이었다. 무려 1천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1월 1일 나이지리아 대통령 국력 조나단은 연료 보조금 지불을 철폐했다. 나이지리아의 1억 6천만 국민 중 대다수가 하루 3백20나이라(미화 2달러)를 벌지 못한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연료 가격이 리터당 65나이라에서 1백41나이라로 올랐다.

나이지리아 양대 노총은 파업을 호소했다. 그들은 보조금 지급 재개를 요구한다. 나이지리아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7백만 명 정도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노조원들의 강력한 힘을 보여 줬다.

파업으로 나이지리아 경제 활동이 중단됐다. 공장, 은행과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 상점들도 문을 열지 않았다.

계엄령 아래 군의 통치를 받는 북동 지역을 제외

한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에서 수백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심지어 군의 통제를 받는 주들에서도 파업 감시 위원들이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며 파업 참가자를 독려했다.

나이지리아에서 노조 운동은 종교와 종족을 초월해 민중을 단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세력이다.

이번 노동자 투쟁은 자본주의가 99퍼센트를 소외시키고 지배하는 나이지리아가 아닌 ‘또 다른 나이지리아’가 가능함을 보여 줬다. 물론, 지배계급은 팔짱끼고 가만있지 않았다.

정부가 파업 참가자들에게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20명 이상이 다쳤고 세 명이 죽었다.

라고스에서는 시민들이 경찰 첩자들을 확인하고는 첩자들의 자동차 번호를 적은 후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널리 알렸다.

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라고스 주지사

는 관련 경찰들을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파업 전부터 나이지리아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있었다. 지난주에도 도시 수십 곳에서 다양한 시위가 벌어졌다.

카노에서는 시위 참가자 수만 명이 도심을 점거하고 그곳에 ‘자유 광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종교적 차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경찰들은 무자비하게 시위 참가자들을 공격했다. 그러나 많은 하급 경찰은 반란을 동정하고 있고, 경찰 3백여 명이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자 경찰 총장은 이들을 ‘폭도’라고 불렀다.

공항, 항구와 국경 검문소가 모두 문을 닫았다. 시민들은 음식과 식수를 비축하면서 파업을 준비해 왔다. 이번 월요일은 영광의 날이었다. 그러나 투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바바 예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나이지리아 자매 조직인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의장이다.

왜 혁명 조직 건설이 중요한가

얼마 전 뜻밖의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조성민 동지는 반생을 사회주의자로 살며 혁명 조직 건설에 힘을 쏟았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했던 활동은 운동을 건설하며 신문을 판매하고, 후배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혁명조직의 활동가로 성장시키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혁명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

혁명적 사회주의의 핵심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행동만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최근 일어난 아랍 혁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배자들에 대한 거대한 도전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엄청난 에너지와 창조성을 발휘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대중이 자기 혁신 활동에 나설 것이며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권력을 얻으려고 투쟁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운동은 본질상 복잡적이며 모순적이다. 현실 세계에서 실제 운동들은 온갖 경향들과 자극들로 이루어져 있다. 거대한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삶은 얼마나 단순할까!

예를 들어, 2008년 촛불항쟁이나 최근 한미FTA 반대 투쟁에는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런 사상의 차이는 운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둘러싼 태도의 차이 등으로 나타난다. 운동을 이런 차이를 둘러싼 토론과 논쟁이 계속 벌어지는 공간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운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논쟁들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둘러싼 것이지만, 특별히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논쟁들도 있다.

권력자들을 설득해 태도를 바꾸도록 로비하는 게 가장 좋은가? 아니면 강력하고 전투적인 운동을 건설해 권력자들의 결정권 자체에 도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투쟁하는 쟁점들은 서로 동떨어진 것들인가, 아니면 모두 서로 연결된 것들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 우리는 다른 나라 운동들의 실수와 성공에서 배울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과 그 밖의 다른 많은 문제들을 둘러싸고 다양한 대답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온갖 집단들이 등장하고 이들은 때로는 외부 기구들(정당, 종교단체, 직능단체, 기타 등등)과 연결돼 저마다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

이런 제안들 중 일부는 운동을 탈선시킬 것이다. 일부는 운동의 결집력을 약화시킨다. 일부는 운동 안에 분열의 씨앗을 뿌린다.

사회주의자들이 응집력 있는 조직을 결성해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며 운동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견해들이 운동 속에서 유력해질 수 있다.

프랑스 공산당 관료들은 1968년 5월에 노동자들이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드골 정권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1979년 이란 혁명에서는 우파 성직자들이 혁명의 지도력을 장악해서 노동자 투쟁의 열기를 가라앉히고 보수적인 이슬람국가 수립으로 혁명을 왜곡시켰다.

1973년 칠레에서는 심지어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주장하며 집권한 정부가 옛 정권의 군 장성들과 타협하다가 야만적인 반혁명을 자초하고 말았다. 역사는 그런 사례들로 가득하다.

어떤 사람들은 민중 반란의 “자생성”에 의존해서 모든 장애물을 일소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당연히 모든 위대한 운동에서는 민중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엄청나게 “자생적으로” 폭발했다. 그러나 자생성은 자생성이다.

‘자생적’으로 운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 안팎에서는 많은 조직된 목소리들이 저마다 주의를 끌고 지지를 얻으려 경쟁한다.

따라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조직을 구축해 자신의 주장들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의존해서 자본주의의 핵심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조직을 건설해 대중 속에 탄탄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서 조성민 동지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레프트21> 72호에 기고한 ‘1960년대 미국 민중 저항과 반전 운동’ 기사에서 “원칙이 확립된, 응집력과 경험을 갖춘 활동가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고(故) 조성민 1971~2012

치열했던 신념과 투쟁을 돌아보며

이제 해가 바뀔 때마다 적잖은 이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치열한 삶이 떠오르게 됐다.

2012년 1월 1일 새벽 2시 경 청계천 근처에서 승합차가 택시와 충돌해 전복되는 불운한 사고가 났고 고(故) 조성민 동지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42세였다.

신년 타종 행사에 맞추어 진행된 '한미FTA 날치기 무효·디도스 테러 한나라당 해체' 촛불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는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레프트21>을 판매했다.

운 좋게도 동승했던 그의 동료 여덟 명은 외상 없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마음에 깊은 상흔을 입었다. 특히 운전자였던 동료가 가장 그럴 것이다. 그에게 당신의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자. 모두 그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더 당당하게 투쟁하며 죽은 동료의 유지를 이어가라고 말해 주자.

고 조성민은 1971년 5월 20일에 태어났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태어났고, 대학에 입학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시작한 학생운동의 강렬한 경험은 그를 평생토록 이 세계의 불평등과 불의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

그는 1996년에 한양대 총학생회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뒤 이듬해에 전국학생정치연합(이하 전학련)의 중앙기구에서 정책국장으로서 활동했는데 얼마되지 않아 구속된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주의적 신념을 밝히며 국가의 부당한 탄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전학련 활동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됐다. 자신의 신념을 적당히 감추고 읊소하는 게 낫다는 반응이 나왔다. 다른 한편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게 옳다는 이들도 있었다.

출소 이후 그의 밝은 표정을 많은 이들이 기억한다. 그는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사기 충천해 있었다. 국가 기구의 권위에 무릎 꿇지 않은 까닭이었다.

그는 출소 후 법정에서 대놓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노라고, 그래서 이제 빼도 박도 못 한다고 유쾌하게 웃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가 학생운동을 시작하던 무렵은 지적 혼란기였다. 많은 이들은 사회주의라며 동경하던 소련이 붕괴하자 충격을 받고 이리저리 흩어졌다. 그도 처음에는 소련 사회가 모종의 사회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는 출소 전후에 소련을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로 보는 국제사회주의자들(IS)의 견해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고, 치열한 고민과 거듭된 토론 끝에 미국식 시장자본주의와 소련식 국가 자본주의 모두에 반대하는 혁명적 입장을 채택했다.

최후변론

그 이후 그는 2000년대 초부터 '다함께' 건설에 주도적으로 동참했고, 민주노동당 가입, 반전운동, 노동자 투쟁에도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음악도 좋아했다. 수천 장의 음악 시디와 그만큼의 엘피판을 모았으며 여러 장르의 음악에 대한 방대한 식견을 갖고 있어 밤새도록 음악에 관해 이야기해도 그칠 줄을 몰랐다. 또한 꽤 괜찮은 일렉기타 연주자였으며 송년모임 등에서 멋들어진 연주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반려견 '로자'를 정말 사랑했는데, 개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서적을 탐독할 정도였다. 심지어 여행에서 풀려난 뒤 석방을 환영하는 동지들을 뿌리치고 이를 동안 굶었을 '로자'를 챙기러 달려갈 정도였다.

물론 그는 종종 오전 일정을 핑크 내기도 했고, 2000년대 중엽의 3년 정도는 자신감이 떨어져 중심적인 활동에서 거리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과거의 일이 되고 있었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아랍 혁명과 미국과 유럽 각지의 대중적 분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자신감을 높여 가고 있었다.

그는 2009년 오바마 방한에 항의하는 촛불문화제에서 김스한 여성이 경찰에 둘러싸이자 그 여성을 구하려다 연행이 된 적이 있다. 지난해 6월 재판에서 그가 보여 준 법정투쟁은 방청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줬다. 최후진술이 얼마나 인상적이던지 우연히 방청하게 된 재능교육 노조 활동가들이 "이렇게 멋진 재판은 처음 봤다"고 할 정도였다.

그가 남기고 떠난 집을 찾았을 때 책상 한켠에 수북이 쌓아 올려둔 자료들. 그것은 최근에 그가 <레프트21>에 연재하고 있었던 미국 저항의 역사를 취재한 자료였다.

그 연재는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이해하기 쉬웠으며 흡입력이 있었다. 그는 글의 말미에서 1960년대 미국 저항의 교훈을 간명하게 정의했다.

"원칙,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단지 투쟁 속에서 아래로부터 자동적으로 탄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것은 원칙이 확립된, 응집력과 경험을 갖춘 활동가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최근에 그는 다함께 서울동부지구 모임에서 공개토론회와 세미나를 담당하며 대학생들과의 토론과 지적 자극에 한껏 고무받아 있었다.

이렇듯 2011년은 그의 인생에서 각별한 해였다. 그의 죽음은 한 해를 낙관과 열정으로 가득 채워 보낸 직후였다. 많은 이들이 그를 통해 용기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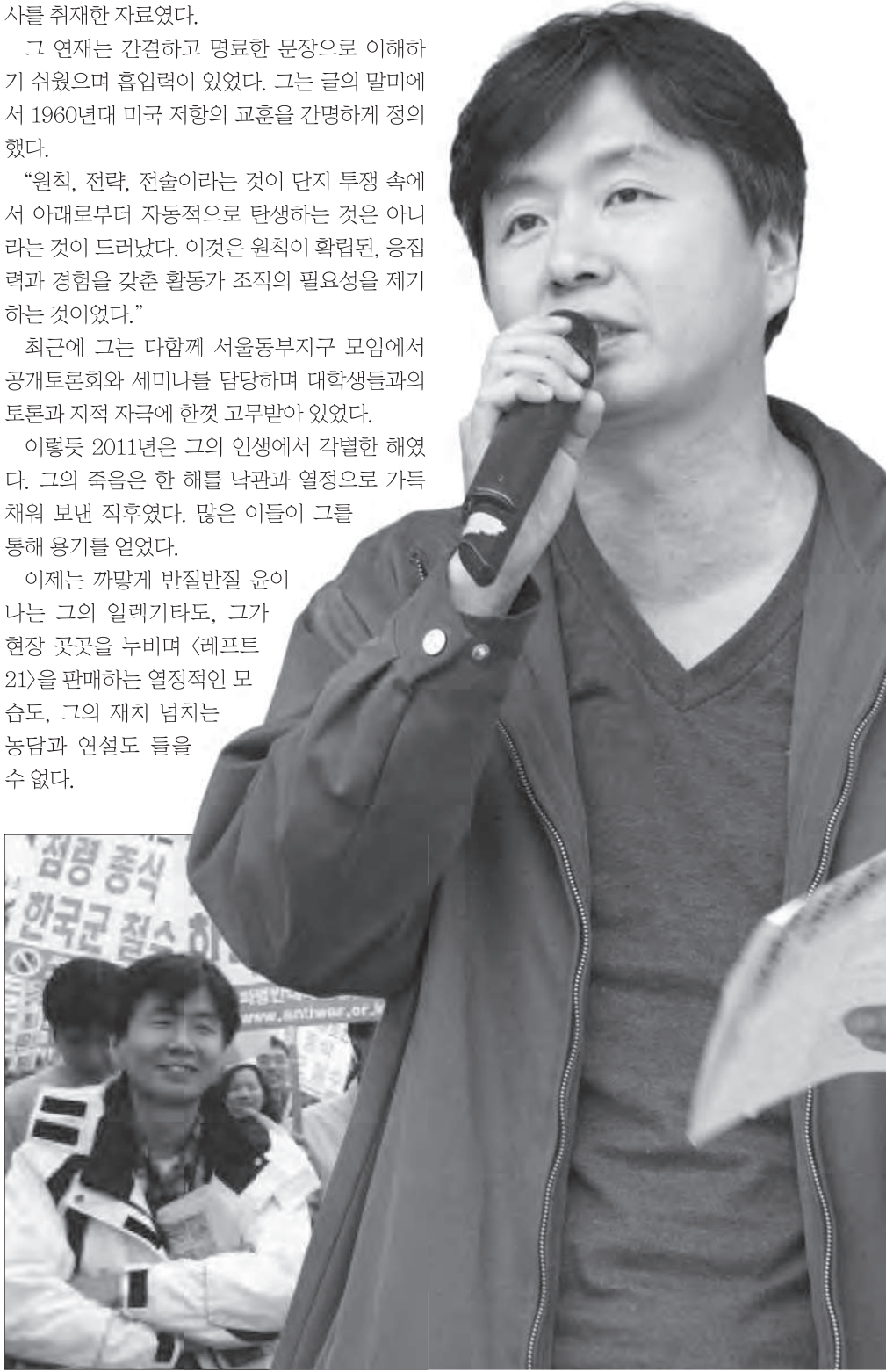
이제는 까맣게 반질반질 윤이 나는 그의 일렉기타도, 그가 현장 곳곳을 누비며 <레프트21>을 판매하는 열정적인 모습도, 그의 재치 넘치는 농담과 연설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행위들은 우리들 경험 속에 깊이 파고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를 보고 듣고 느끼게 될 것이다.

슬퍼해야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그가 몇 년 전 미국의 록 밴드 RATM의 인기를 분석한 글에서 인용한 '타운십 폭동'의 가사를 다시 그의 영전에 바친다.

"반란을 일으켜라, 반란을 일으켜라. 그리고 소리쳐라.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동엽



고(故) 조성민을 기억하는 이들의 목소리

형은 어떤 개념이나 주장에 대해 물으면 그것을 설명한 후, 그것을 반박하는 이론들을 소개하고, 그 이론들이 어떤 점에서 왜 잘못됐는지를 알려 주는 식으로 풍부하게 설명해 줬다. 하나를 물으면 열을 가르쳐 준 것이다.

오정숙

송년회 때 노동자 회원들이 지구모임에 잘 나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그의 깊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규율을 세워야 한다는 데 더 혼란해 동의해 줄 걸 하는 후회가 된다. 나에게 노동조합 일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지구모임에 나와야 한다고 잔소리하던 그가 그림다.

김연오

집회를 마치고 보신각에서 새해를 맞으며 그가 내게 새해에는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면 손을 잡고 격려해 줬던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정현호

그는 저에게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설명해 주는 선생님이었고,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고생하던 동지였고, 지역에서 함께 일을 조직하는 파트너였고, 기분 울적할 때 함께 여행을 떠나 주는 친구였고, 제가 아플 때 걱정해 주던 가족이었습니다.

전주현

비록 조성민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나는 순간 그의 입으로 우리에게 그 어떤 말

도 남기지 못했지만, 그가 혁명가로 살아온 20년의 삶, 그리고 그 20년 동안의 실천을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김소망

정치적 일관성이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시대 착오로 조롱받는 시대에, 그는 일관되게 노동계급의 자기 해방에 장애가 되는 모든 사고 방식과 전투를 벌여 왔다.

박정훈

희망 없는 비정규직의 현실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며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당신을 만난 것은 내게 행운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며 살아도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암울한 현실을 탈출할 수 있는 답을 알게 해 줬고, 무

엇을 해야 내 삶이 바뀔 수 있는지 알게 해 준 사람이죠.

장미순

슬퍼만 하고, 후회만 하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성민이 형이 살아온 것처럼 살진 못하더라도 성민이 형의 흉내 정도는 내고 살아야겠습니다. 성민이 형이 보여 줬던 것처럼 살아야겠습니다. 형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그가 르침에 노동계급의 진정한 해방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조규민

"영향력이 높아졌을 때 적이 생겼다는 것은 금방 드러나지만 지지자들이 생

겼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바심을 갖지 말고 묵심 있게 활동해야 합니다." 그의 조언들은 저의 활동에 확신과 힘을 줬고 지금도 자주 되새기게 해 줍니다.

김두석

며칠 전 술자리에서 그가 진지한 얼굴로 내게 했던 "좀더 책임지려 하고 실천 속으로 한 걸음 더 자신을 던져 넣으라"는 말이 유언이 될 줄 몰랐다. 동지와 함께 했던 3년 7개월은 내게 여행과 같다. 목적지에 당도하지 못하는 한 여행은 계속돼야 하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 축포를 쏘아 울릴 일은 우리들의 몫이다. "슬퍼하지 말고 조직하자!"

이창배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월 30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세종호텔 노조 투쟁

영업을 마비시킬 단호한 투쟁과 연대 확대가 관건이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열흘 넘게 호텔 로비 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35년 만에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은 민주적 토론을 바탕으로 자신감과 결속력을 높여 왔다. 이에 힘입어 노조 지도부도 시간이 갈수록 교섭 내용을 투명하게 보고했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렇게 꽃핀 노동조합 민주주의는 지난 몇 달간 사측의 노조 탄압과 친사용자 노조 결성 등으로 위축돼 온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윤주범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뽕뽕 뭉쳐 하나가 되니까 힘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수 노조이기 는 하지만, 큰 소리를 내니까 사측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대표이사 최승구는 “파업 전이나 후나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게 없다”며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사측은 파업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고 이 투쟁이 ‘부당 전보자 3명과 비정규직 4명만을 위한 싸움’이라고 비난했다. 소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싸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종호텔 회장 주명건이야말로 자신의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사학비리로 세종대 학생들을 등쳐 먹고 호텔 노동자들을 쥐어짜 온 장본인이 아니던가. 주명건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고 우파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 온 부패한 1퍼센트의 일원이다.

더구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탄압받는 동료들을 위해 함께 싸움에 나선 것은 이기적이기는커녕, 오히려 감동적인 일이다.

사측이 용역회사 설립으로 외주화까지 추진하는 마당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외주화 철회 등의 요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 모두의 요구일 뿐 아니라 전체 노동운동의 지지를 받아 마땅한 요구다. 사측이 그토록 노조를 탄압하고 친사용자 노조 결성을 지원한 것도 구조조정에 필요한 장애물을 없애려는 것이었다.



파업 5일차인 1월 6일 세종호텔 투쟁 승리 집회. 사기와 동지애가 높아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노조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임금 8퍼센트 인상, 부당 전보 철회, 고용안정 협약 준수 등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2년 이상 일용직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가, 외주화 압력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가, 부당 전보에 분노해 투쟁에 나선 젊은 노동자가, “사측이 만든 분리에 맞서 단결하자”는 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어깨 겶고 싸우는 것이다. 사측이 근래 협상에 나선 것이 ‘시간

끌기용 핏수’였다는 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 노조는 사측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더 강력한 투쟁 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로비 농성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여 왔지만, 영업에는 차질을 주지 못했다. 소수 노조라는 약점과 호텔업계 비수기라는 조건이 효과를 제약한 측면도 컸다.

따라서 노조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대체인력 투입을 막고 영업을 실제 마비시킬 행동에 나서야 한다. 진정으로 이윤에 타격을 주고 사측을 압박해야 한다. 단호한 투쟁은 연대의 초점을 만들고 정치적 압력도 형성할 수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KEC 등의 사례를 들며 점거파업 등 단호한 행동의 효과에 의문을 던지기도 하지만, 당시 KEC 투쟁에서 기세가 꺾인 진정한 이유는 무엇 하나 분명히 얻지 못한 채 스스로 점거 농성을 해제한 것에 있었다. 단호하게 점거를 유지할 때만 해도 KEC 노동자들의 투쟁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물론, 사측은 경찰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의 작업장에서 벌어진 경찰 투입은 안 그래도 휘청대는 이명박 정부에게도 선택하기 쉽지 않은 무리수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

하고, 사기와 단결력이 높고, 연대가 탄탄할 때는 경찰력 투입 결정이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입된 경찰이 끝까지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낸다면, 이것은 큰 반발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형성된 연대로 또 다시 호텔 입구에서 출입 봉쇄 투쟁 등을 벌이며 계속해서 이윤 손실을 내게 만들고 사측을 압박할 힘을 얻을 수도 있다.

단호한 투쟁은 저들이 협박하는 손배가압류·징계를 막을 가능성도 열 수 있다. 철도노조가 사상 최대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던 것은 노조가 강력히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성과도 없이 파업을 접어 사측에게 승기를 내줬기 때문이다.

투쟁이 승리하려면 연대의 힘도 중요하다.

구조조정 저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세종호텔 투쟁은 경제 위기 하에서 고용불안에 신음하는 이들의 목소리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이 투쟁에 지지를 보내야 한다.

단호한 이윤 압박과 광범한 연대로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부패와 노조 탄압으로 얼룩진 MB맨 주명건을 무릎 꿇게 하자.

강이주·박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목소리

“매일매일 연대가 기다려줍니다”

“6개월 전에 저는 노보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보를 뿌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연합노조(친사측 노조)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비슷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날 위해 고생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농성하면서 동료애가 커졌습니다. 나만 아니라 동료들을 위해 파업한다고 생각하니, 더 즐겁습니다. 아마 나만을 위했다면 농성장에서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파업만은 하지 않았으면’ 하고 끝까지 빌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싸우고 연대하러 와 준 동지들을 보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연대가 정말 큰 힘입니다.”

박종혁

“시작이 반이라고, 농성을 시작하고 나서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특히 연대 동지들이 큰 힘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연대가 제일 기다려줍니다. 다양한 분들이 오고, 쌍용차 같은 장기 투쟁하는 동지들이 오면서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도 꼭 승리해서 다른 투쟁에 연대해야 합니다.

연대 동지들은 제가 행동하는 데 확신을 주었습니다. 얘기를 나눌수록 힘이 나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고진수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사측이 만들어낸 분리이고 차별입니다. 비정규직 동료의 상황이 마음 아파서, 정년을 30개월 앞두고 파업에 나온 정규직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맞서 같이 싸워야 합니다.”

박춘자

김용남 철도노조 기획국장 인터뷰

“공공성을 파괴할 KTX 민영화를 막아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올해 KTX를 분할해 민영화하려 합니다. 정부는 민영화에 부정적인 철도 정책 담당자들을 교체하기까지 했습니다. 흑자 노선인 KTX 수도권 노선 개통이 이윤에만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화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적자노선 유지나 교통 약자 할인 등에 필요한 공익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부 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KTX 민영화는 철도 노동자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발표된 계획만으로도 최소 3천 5백~4천 명의 인력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5천여 명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도 철도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노동강도가 높아져 과로나 심근경색으로 죽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도 꼼꼼히 할 수 없어, 승객들



12월 25일 철도노조 KTX 분할 민영화 저지 투쟁. 이명박의 마지막 ‘먹튀’를 막아야

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민간 전문인으로 구성된 철도안전위원회도 안전을 위해선 8천여 명을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고 애기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KTX 민영화는 시설 유지·보수 업무까지 1백 퍼센트 외주화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철도공사와는 독립적인 민간 유지·보수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

고 있습니다.

국가는 당연히 값싸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서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철도는 국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기업이 수익성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 노동자들과 99퍼센트의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KTX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인터뷰·정리 소은하

해고 항의 구로구청장실 농성

방문 간호사를 즉각 재고용하라

지난 1월 2일, 비정규직 방문 간호사 두 명이 해고에 항의해 구로구청장실 농성을 시작했다.

구청 측은 이들이 “불법 점거”를 했다며 비난하지만,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바로 구청 측이다.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 해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1인 시위 등을 벌여 왔다.

구청 측이 10개월 단위 계약으로 노동자들을 재고용하면서 ‘2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무를 회피해 온 데 항의한 것이다.

이를 눈엣가시로 여긴 구청 측은 지난해 말 방문 간호사 재고용에서 이들을 탈락시켰다. 2년 동안 일해 온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구로구청 측은 재고용 심사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들은 이미 두 번이나 재고용된 바 있고, 보건소 소장도 이들

에게 뚜렷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시인했다.

따라서 방문 간호사 두 명에 대한 해고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구청 측은 추가 심사 없이 즉각 노동자들을 재고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더구나 노동자들을 부당 해고한 장본인인 구로구청장 이성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라는 점은, 민주통합당의 피죄죄한 면모만 보여 주고 있다. 진정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려면, 노동자들을 보복 해고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진지하게 추진해야 한다.

방문 간호사들의 구청장실 점거 농성은 정당하다.

연대와 지지는 더 확산돼야 한다. 특히 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가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박미혜 구로병원 노동자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1월 30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동국대 학생 징계를 철회하라

동국대 당국이 학과 통폐합에 반대해 총장실 점거 투쟁을 벌였던 학생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이 투쟁을 이끈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학생회 활동가가 퇴학을, 다른 학생들이 무기정학·유기정학·사회봉사 등을 당했다. 2000년 이래 가장 많은 무려 30명이 징계를 받았다. 무더기 징계로 학과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농성이 “권위주의 시대에나 사용되던 불법”이라며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징계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그간 학교 당국이 보인 태도가 말로 권위주의 시대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동국대 당국은 학생들의 정당하고 절박한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폭력적으로 점거 농성장을 침탈했다.

한편, 학교 당국은 입학 설명회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던 중 한 교직원이 다친 일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교직원 이 부상당한 일은 이 투쟁에 참가한 학생들이 사전에 모의한 것도, 시위 현장에서

의도해 벌어진 것도 아니었다. 어디까지나 학교 당국의 고압적 태도에 분노한 참가자 개인의 우발적 행동에 의한 것이었다. 우발적 사고를 빌미로 이 투쟁의 대의, 정당성, 학생들의 절박함을 무시해선 안 된다.

동국대 학생들은 지난 몇 년간 학과 구조조정에 저항해 왔다. 이미 학교 당국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독문과가 폐과됐고, 윤리문화학과·문예창작과 등이 폐과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 투쟁은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 기업화에 반대해 온 학생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기도 했다.

학교 당국은 총·부총학생회장을 퇴학시키며 학생 자치권마저 위협하려 하고 있다. 구조조정에 저항해 온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게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 당국도 2006년 진보적 활동가들을 출교시키며 학생들의 저항을 억누르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년간 벌어진 학생들의 끈질긴 투쟁과 사회적 연대로 징계받은 학생 전원이 복학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학교 당국은 망신을 당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징계 철회 서명 운동과 신문 광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배움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학교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내린 부당 징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하며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학이 이윤 논리를 앞세우며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동국대 학생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김지윤

동국대 학생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이렇게 합시다

– 부당 징계 철회 동문·법시민 서명운동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7568

– 징계 철회 신문 광고 참여

[이름/일반참여/응원멘트]를 이메일 혹은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 있습니다.

ddj2009@hanmail.net

010- 6384-5568

신문 광고 비용 모금 모금계좌:

제일은행 114-20-754091

(예금주 : 박인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말한다

“이경훈은 진보정당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을 구속한 것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도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한미FTA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이면합의’를 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만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이번 총선은 중요합니다. 진보진영의 후보들이 많이 의회에 진출하길 바랍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통합진보당이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경훈 현대차지부 전 지부장이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로 출마했다는 소식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는 2010년에 앞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물심양면 돕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당시 공장 점거파업은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동안 공장을 멈췄습니다.

사측은 이 희망을 짓밟으려고 악랄하게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더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경훈은 연대하러 온 분들을 ‘외부세력’으로 몰아 내쫓았고, 우리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설마 설마 하다가 농성 해제를 압박하는 모습에 모두들 차를 뺐었습니다.

그런 그가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울산에서 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한 이경훈이 노동자·서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진보당 내부 경선에서 이경훈은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그가 결코 진보정당의 후보가 돼선 안 됩니다.

정윤석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통합진보당 당원

독자토론광장

1월 30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Letter@left21.com

혁명적 신문의 구실

최근 한 동지와 신문 판매에 관해 토론하다가 혁명적 신문에 관한 크리스 하먼(작고한 영국 사회주의자)의 글을 읽었다. 읽은 소감을 공유하고자 편지로 보낸다.

‘다함께’ 회원이 되면 간행물을 읽고 일상적으로 판매하며, 이것을 매개로 토론한다. 또 정기적으로 거리판매도 한다.

공개적인 신문 판매는 자신이 급진적 사상의 소유자임을 커밍아웃하는 일이고, 아직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사람들, 때때로 언제든 반감 섞인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의 항의를 받는 것도 감수하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활동이다. 이 때문에 신입회원에게 신문 판매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 조직에게 간행물은 단지 ‘홍보 수단’이 아니고, 판매에 나설지 나서지 않을지를 회원 각자의 취향에만 맡겨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혁명적 신문은 각지의 투쟁 소식들을 알리고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의식과 운동에 개입하는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적인 간행물의 발행과 이를 통한 대중과의 만남은 계급과 당 사이의 활발한 소통에 기여한다. 이러한 이유로 하먼은 간행물 중심의 조직 방

식이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지배적인 사상이 지배계급(자본가 계급)의 사상’인 동시에 ‘노동계급은 스스로 자기해방에 도달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지배계급 사상의 틈을 파고들어 후자를 더 고무하기 위해 변혁 조직이 존재한다.

하먼은 바로 신문을 통해 “인민 대중의 경험과 관계를 맺는 일정한 방법”을 찾고, “혁명적 세계관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보다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측면뿐만 아니라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해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비록 논조는 급진적이었지만 단순히 논쟁자에 머물렀던 몇몇 신문들이 투쟁의 침체기에 어떻게 고사했는지 사례를 들어 보여 준다.

즉, 혁명적 신문은 “원칙과 경험과 당면 과제를 연결”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메우는 기관”이 돼야 한다.

지노비에프는 1921년 코민테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부르주아 신문과 사회민주당 신문들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요소를 도입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공장과 작업장에서 낚여 노동자들이 보내거나 또는 병사들이 보내는 편지다.”

하먼 또한 이를 인용하면서 “노동자 대중의 생생한 경험들을 표현”하는 신문이야말로 “노동자들을 위한 신문이자 노동자들의 신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변혁조직의 회원은 누구나 리더고, <레프트21>의 독자라면 누구나 기자다. 신문에 글을 기고하는 것은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신문의 주인인 독자로서, 사태에 개입하고자 하는 변혁조직의 활동가로서 자연스러운 권리이자 구실이다.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한 기사, 현재 개입하고 있는 투쟁에 관한 소식, 편집진의 주장에 대한 반박 혹은 부연, 때때로 첨예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레프트21>에 기고할 수 있다. 독자 기고가 활발한 신문이야말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장이다. 또한 그러한 자발성과 능동성은 조직의 피를 맑게 하고 ‘관성’이라는 잡초를 뽑아낼 수 있다.

김승주

헛점 투성이 ‘무상’ 보육 지원

복지확대에 대한 대중의 압력으로 국회는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만 0~2세 아동의 보육비와 5세 아동 어린이집 보육비와 유치원 교육비를 전액 지원할 방침이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만3~4세는 종전과 같이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말이 소득 하위 70퍼센트일 뿐, 자동차보유 여부와 전세금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상당수 노동계급 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편의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우리집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보육료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그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0~2세는 엄마의 구실이 중요하다.

기 때문에 많은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수입이 주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가정양육을 하고 있다. 그도 여의치 않으면 할머니가 대신 돌보는 가정이 많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에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실제 영아를 전담으로 돌보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 지원을 받으려고 열악한 환경에 아이들을 노출시키게 되고 아이들이 사고당할 위험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3~4세는 보육시설 이용이 가장 많은 시기다. 외자녀가 많다 보니 아이들의 사회성과 놀이를 위해서 많은 가정에서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매달 30만 원 이상을 보육료로 지출해야 한다. 병원비와 여타 육아에 대한 비용은 갈수록 높아져 노동계급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출산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 연령과 소득 등에 관계 없이 차별없이 제공돼야 한다. 더불어 사회 전반적인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

장미순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토론회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99-13 3층 303호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l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2-6338-2395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89-2 201호

새해부터 다시 시작된 그리스 파업

아테네에서 파노스 가르가나스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이자
주간 〈노동자 연대〉 편집인

그리스 아티키 지역(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포함하는 주변 지역) 노동자들이 작업장 세 곳에서 일어난 전면 파업에 연대해 1월 17일 조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 파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달 넘게 파업 중인 철강 노동자들의 파업이다. 1월 17일 지역 파업은 엘레프시나 노동센터가 호소했다. 엘레프시나 노동센터는 민간 부문 노동자와 공공 부문의 산업 노동자를 포괄한다. 그리스 노조는 전국 연맹 안에 지역 노동센터별로 조직돼 있다. 엘레프시나 노동센터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지역에서 비슷한 파업을 호소했다. 당시 파업은 1970년대 이래 이 지역에서 일어난 파업 중 가장 큰 파업이었다. 세 군데 전면 파업 중 둘째 것은 그리스 주요 일간지 〈엘레프테로티피아〉에서 체불 임금을 두고 일어난 파업이다. 기자, 인쇄 노동자, 기술자들이 모두 파업에 참가했고 신문사 건물을 점거했다. 파업 참가자들은 이번 주말에 신문을 자체적으로 발행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소규모 경제지 〈인베스터스 월드〉의 노동자들은 이미 자체 발행을 시작했다. 셋째 전면 파업은 TV 방송국 알타의 파업이다. 노동자들은 〈엘레프테로티피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임금 체불에 항의해 파업과 점거에 들어갔다. 파업이 시작됐을 때, 노동자들은 왜 자신들이 파업에 돌입했는지 설명하는 성명서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나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온 연대 메시지와 다른 파업에 보내는 자신들의 연대 메시지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쟁의에 대한 영상 방송을 늘리려 한다. 이런 행동들은 작지만 노동자 통제로 나아가



지난해 11월 17일 정부의 내립 강요에 항의해 아테네 거리를 행진하는 노동자들 그리스 노동계급의 전투성은 급진적 대안을 실현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는 커다란 전진이다. 세 군데 전면 파업은 중요하다. 그 파업들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연대가 크고 모두 노동자 통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커다란 연대 물결은 처음에는 철강 노동자들을 향했다. 철강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에 파업에 들어갔다. 철강 공장에는 공산당이 운영하는 노조 연맹에 가맹한 좌파 노조가 있다. 노조 지도부가 파업을 지지하고 있지만, 기층 노동자들도 노조 운영에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관여한다.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대중 집회를 열고 있다.

노동자들은 연대를 조직하고 기부받은 음식을 배분할 기구를 조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다른 작업장으로 가서 1월 17일 파업을 조직할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다.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지지하지만 기층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봐 걱정한다. 그러는 동안 실업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크게 늘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 정부에 더 긴축하라고 요구한다. 많은 공공 부문 노동자의 소득은 이미 25퍼센트나 줄었다. 이제 민간 부문 고

용주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 한다. 이는 단지 국가 부채 위기 때문만이 아니다. 기업주들은 위기를 이용해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리스의 새 정부는 민간 부문 임금 삭감을 법제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노조들은 아직 추가 파업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종합해 보면 1월 17일 전후로 총파업이 벌어질 듯하다. 번역 차승일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85호

위기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투쟁

그리스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굶주림 때문에 기절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 가족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경제 침체는 이제 4년째에 접어들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실업자는 75만 명이다. 노조들은 진짜로는 실업자 수가 이미 1백만 명을 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올해 20만 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은행과 투기꾼들이 만든 위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

현대차 신승훈 조합원 분신과 투쟁

단호한 파업으로 하루 만에 사측을 무릎 꿇리다

정동석 현대차지부 울산4공장 현장위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엔진공장 파업과 전 조합원 결의대회 등으로 분신 사태를 초래한 사측을 보기 좋게 굴복시켰다. 사건은 1월 8일 현대차 울산공장 엔진 5부 신승훈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해 중화상을 입으면서 시작했다. 신 조합원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댕긴 것은 사측의 현장 통제 때문이었다. 사측은 분신하기 전날에도 신 조합원을 괴롭혔다. 부서장은 신 조합원이 조립 라인 옆에서 조장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꼬투리 잡아 “작업 공정을 이탈하면 근무 시간에서 빼겠다”고 협박했다. 얼마 전 신 조합원이 부서장에게 품질 개선 의견을 두고해 감사탑이 파견되자, 중간 관리자들이 보복에 나선 것이었다. 그동안 엔진5부 노동자들은 사측의 감시와 현장 통제에 시달려 왔다. 한 노동자는 “옆 동료와 얘기만 나눠도 반장부터 관리자까지 내려와 무슨



1월 9일 엔진공장을 멈추고 집회에 참가한 현대차 노동자들 이번 승리를 더 큰 투쟁으로 이어가자.

얘기를 했냐고 따질 정도”라고 혀를 찼다. 또 다른 노동자는 “퇴근 시간까지 감시하려고 지원과장이나 부서장이 지키

고 서서 사진 채증을 한다. 이번 기회에 부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지원과장, 반장까지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현대차지부는 “이번 사건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현장 통제가 빚어낸 참사”라고 밝히고, 곧바로 투쟁을 선포했다. ‘신승훈 조합원 분신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대표이사 사과, 현장 통제 수단인 공장혁신팀 해체 등 6가지 요구도 내걸었다.

‘무파업 3년’의 종말

울산공장 엔진사업부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전 공장 주·야간 잔업 거부와 주말 특근 거부 등도 결정됐다. 1월 10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에는 4천여 명이나 모였다. 현대차지부가 3년 만에 기지개를 켜고 파업을 벌이자, ‘불법파업’ 운운하며 “노조가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버티던 사측은 엔진공장이 멈춘 지 18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현장 통제 부서인 공장혁신팀을 해체하고, 전 공장에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도 붙이기로 했다. 파업에 따른 무노

동·무임금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차지부의 말처럼, “사과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사태를 은폐하려 했던 사측은 노조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투쟁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 노동자들도 “사측이 완전히 밀렸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이경준 전임 집행부의 ‘실리 없는 실리주의’에 실망해 ‘투쟁’을 강조한 문용문 집행부를 선택한 지 2개월 만에 ‘무파업 3년’을 끝내고 공장을 멈춰 통째로 승리한 것이다. 이번 승리는 사측의 현장 통제와 탄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 보여 줬다. 현대차지부는 이를 디딤돌 삼아 제대로 된 주간연속2교대제 철폐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현대차에서 이런 투쟁이 발전한다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이고 이명박 정부에게는 강력한 위협이 될 것이다.